

文學碩士 學位論文

三韓時代 慶州地域 木棺墓 研究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熙 哲

2007年 6月

三韓時代 慶州地域 木棺墓 研究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熙 哲

金熙哲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07年 6月

目 次

I. 머리말	1
1. 연구현황 및 연구방법	2
II. 遺蹟소개	6
1. 遺蹟概要	6
III. 삼한시대 경주지역 묘제	17
1. 木槨墓	18
2. 木棺墓	20
IV. 경주지역 목관묘	22
1. 경주지역 목관묘 분석	22
2. 목곽묘유적 비교검토	32
3. 경주지역 목관묘의 부장위치 및 성격	35
V. 경주지역 삼한사회의 성격	39
1. 시대상황	39
2. 묘제연구를 통해 본 경주지역 사회의 상황	42
VI. 맺음말	44
참 고 문 헌	47
Abstract	50

表 目 次

<표 1> 사라리유적 목관의 속성	23
<표 2> 조양동유적 목관의 속성	25
<표 3> 황성동 강변로유적 목관의 속성	29
<표 4> 덕천리유적 목관의 속성	30
<표 5> 경주지역 목관묘내 부장품의 부장 위치	36

圖 目 次

<圖 1> 삼한시대 경주지역 주요유적 분포도	7
<圖 2> 사라리유적 유구분포	8
<圖 3> 사라리유적 목관묘유적 위치도	9
<圖 4> 조양동유적 유구분포	10
<圖 5> 조양동유적 유구위치도	11
<圖 6> 황성동 강변로유적 유구분포	12
<圖 7> 황성동 강변로유적 유구 위치도	13
<圖 8> 덕천리유적 유구분포	14
<圖 9> 덕천리 유적 유구 위치도	16
<圖 10> 木棺墓 예 (조양동 28호 목관묘)	19
<圖 11> 木槨墓 예(조양동 2호 목곽묘)	20
<圖 12> 사라리유적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구분포도	24
<圖 13> 사라리유적 구슬 부장현황	25
<圖 14> 조양동유적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구분포도	27
<圖 15> 조양동유적 구슬부장현황	28
<圖 16> 황성동 강변로유적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구분포도	29
<圖 17> 덕천리유적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구 분포도	31
<圖 18> 덕천리유적 구슬 부장현황	31
<圖 19> 조양동유적 구슬부장 목곽묘 면적	33
<圖 20> 황성동 일대 목곽현황 및 구슬부장 목곽묘 현황	33
<圖 21> 황성동유적 구슬부장 목곽묘 면적	34
<圖 22> 덕천리유적 구슬부장 목곽묘 면적	35
<圖 23> 삼한시대 주변 환경	40

I. 머리말

경주는 신라 1천년의 중심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하였으며, 신라 또는 斯盧國으로 그 명칭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로국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국읍의 중심과 형성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로국에 관한 초기 기록은 『三國志』東夷傳나 『後漢書』東夷列傳에 기록된 韓에 대한 기록 중 辰韓 12國 중 하나의 국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¹⁾. 그러나 사로국에 대한 정확한 위치비정이나 형성시기에 대한 문헌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본고에서는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여 목관묘 집단의 계층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고고학 자료는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취락자료와 간접적으로 반영한 무덤자료가 되겠다. 그러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삼한시대의 취락자료는 조사된 예가 희박한 실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삼한시대의 주 묘제였던 목관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등장하는 목곽묘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검토하여 사로국시기 목관묘 계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2세기까지 한국식동검문화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묘제이다. 경주지역에서는 1980년대 조양동유적이 발굴조사됨으로서 삼한시대의 목관묘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대단위의 발굴로 인하여 다수의 삼한시대 목관묘가 확인되어지고 있으며,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주변과 남해안 일대인 창원 다호리유적과 울산 하대유적 및 다운동유적, 김해 대성동유적과 양동리 유적 등에서 이시대의 유적이 확인됨으로서 분묘유적과 부장품을 바탕으로 사회구조, 생산체계, 방어체계 등을 연구함으로서 당시의 사회상을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삼한시대 유적은 경주와 울산을 연결하는 곡간지역을 따라 조양동유적, 구정동유적, 전 평리유적, 입실리유적, 구정동유적 등이 분포하며, 북으로는 흥해 지역과 포항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안계리유적이 위치한다. 영천방면으로는 사라리유적과 영천어은동유적이, 언양방면으로는 덕천리유적이 분포하며, 사로국의 국읍으로 추정되는 경주 시내권에는 황성동유적만이 확인 될 뿐이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한시대 연구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행되

1) 『三國志』魏書 東夷傳.
『後漢書』東夷烈傳.

는 전환기적인 진행과정에 있어 목관묘 연구가 부수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목관에서 출토되는 철기와 와질토기 등 개별적인 유물의 시기구분을 통한 통시적인 편년연구에 그쳤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목관묘를 유적별로 비교·검토하여 유적별로 나타나는 계층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현황 및 연구방향

본 장에서는 신라의 모태가 되는 斯盧國이 위치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목관묘에 대한 연구현황과 목관묘의 분류 및 변천과 지역적 특성, 목관묘의 위계구조 등을 살펴 연구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사 검토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대의 분묘연구는 최근 분묘유적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즉 유구의 구조를 분석하여 시기적 변천과정연구를 살펴거나³⁾,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한 편년의 확립⁴⁾ 등 목관·목곽묘에 대한 연구가 거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양상을 살피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주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의 증가로 인해 기원전후의 분묘유적이 다소 확인됨으로서 사로국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다. 경주지역에 대한 목관묘 연구는 영남지역의 목관묘와 목곽묘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언급되고 있으나, 경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목관묘에 대한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⁵⁾. 여기서 하진호는 경주사라

2)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林孝澤 1993, 「洛東江 下流域 伽倻의 土壙木棺墓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安在皓 1994,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14 pp.63~87.

金龍星 199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李盛周 1997, 「辰·弁韓 鐵製武器의 樣相에 대한 몇 가지 檢討 -起源期の 樣相과 變形過程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報』 21.

5) 韓國上古史學會 2006, 『斯盧國시기의 慶州 무덤과 地域集團』,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리 130호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목관내에 부장된 70매의 관상철부와 다수의 철기는 철소재의 대량생산 즉 철기생산에 대한 통제력이 당시 지배권력의 주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물부장에 있어서도 청동시기의 비율이 감소되고 청동제 또는 철기무기의 증가 및 철소재의 다량부장 등을 이유로 지역 지배집단의 수장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목관묘와 달리 장송의례가 복잡화되고 정형화되는 것은 장송의례의 복잡화를 통해 하층무덤과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이로서 묘제의 위계화가 더욱 진행화 된다고 보았다⁶⁾.

그리고 이주현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목관·목곽묘 유적을 대상으로 유구의 구조와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과 성격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⁷⁾. 즉 사라리 130호분에서 출토된 70장에 달하는 대형의 관상철부는 辰韓에서 鐵器의 대량생산이 체계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農工具로서의 기능에서 鐵素材로서의 기능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경주 陸路의 길목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라리집단은 産地보다는 物流의 集散地로서의 역할에 더 큰 무게를 둘 수 있으며 사라리130호에서 출토된 다량의 漆器類와 鐵刀, 鐵鍬 등은 辰韓의 鐵에 대응하여 樂浪으로부터 입수한 威身材로서 당시 斯盧國과 樂浪地域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김영민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진한지역으로 규정하고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화와 그에 연동하는 출토유물의 차이를 통해 당시 사회상의 변화에 접근하고 있다. 즉 진한지역의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부장유물의 차이, 목곽묘가 등장하면서 중심 묘역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데올로기의 변화 나아가 두 묘제를 사용하는 집단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⁸⁾.

경주지역에 대한 원삼국시대연구는 1990년대 조유전에 의해 경주지역과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분묘에 대한 유적의 조사내용이 유적별로 다루었다. 여기서 그는 조양동 토광묘군(목관묘와 목곽묘)을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말에 걸친 것으로 묘제와 부장유물의 비교에 의해 5기로 편년하고 있다⁹⁾.

6) 하진호 2006, 「경주 사라리 130호분에 대한 고찰 -발굴조사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7) 이주현 2006, 「慶州地域 木棺·木槨墓와 斯盧國」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8) 김영민 2006, 「진한지역의 목관·목곽묘 출토유물의 검토」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9) 조유전 1990, 「慶州地方 三國時代 前期의 考古學 研究現況」 『韓國考古學報』 24, pp.9~13.

김용성은 토기에 따른 형식분류를 시도하여 목관묘 단계를 III기로 나누었다. 다시 말해 목관묘단계1기는 무문토기단계로 무문토기호, 흑색마연조기장경호, 변형점토대의 심발형토기와 I 형에 속하는 조합식우각파수부호와 주머니호가 출토되며, 목관묘단계2기는 무문토기와 고식와질토기 공반기로 II 형식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가 존재하나 다른 기종으로는 무문토기인 변형점토대의 심발형토기, 고배, 이부발, 양파수부호, 양이호, 웅형토기가 존재하고, 와질토기로는 고배, 완, 웅, 단경호, 매병형토기, 편구형의 소호, 통형배 등이 존재하는 시기로 보았다. 목관묘단계3기는 무문토기는 사라지고 와질토기만 남아 있는 시기로 조합식우각파수부호와 주머니호는 II·III·IV형식이, 새로운 기종으로는 장동호, 양이호와 단경호가 매납된다고 보았다¹⁰⁾.

이재현은 그의 논문에서 무덤에 반영된 사회구조를 다루면서 목관묘의 부장양상에 있어 철기의 부장이 많아지면 질수록 토기의 부장양상이 많아지며, 그것으로 볼 때 철기의 상징성이 크다고 보았다¹¹⁾.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 변·진한의 무덤은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변화하는데, 목관묘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노력소비나 입지 등에서는 구성원간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목관묘 단계까지는 아직 정치권력의 형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기원전 2세기말에서 기원전 1세기 전엽 무렵에는 청동기나 철기와 같은 위신재와 생필품의 생산과 유통, 재분배 체계를 통해 정치적 엘리트가 등장하고 취락 및 지역간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읍락보다 확대된 여러 국이 상주, 대구, 경산, 영천, 경주, 김해 등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목관묘와 청동의기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A.D. 1세기 무렵에는 동일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생산과 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심 취락이 형성되고, 주변의 다수의 취락에서도 엘리트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중심읍락(국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엘리트는 타 지역의 엘리트 세력과도 초지역적으로 연결되어 광역적인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후 기원 2~3세기 무렵에는 영남의 각지에서 신흥의 국이 형성되었고, 중심취락의 주변에 존재하던 정치적 엘리트도 단일한 정치권력으로 통합되어 변·진한 24국을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다.

김대환은 신라 중심지역의 지배층묘를 나름대로 정의해 보고 그것의 존재를 중심

10) 김용성 주4의 논문.

11) 권오영 주2의 논문.

집단의 존재로 가정한 후 집단간의 위계화된 분포패턴을 분석하여 신라 중심지역의 집단관계를 살펴, 목관묘 단계에는 촌락을 기초정치체로 하는 다수의 소국들이 점점이 분포하고 수평적으로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가 3세기경에는 소수의 특정 집단에 의해 재편되어 크게 세 집단 정도가 분립해 있는 양상으로 이해하였다¹²⁾.

이청규는 목관묘를 3단계로 시기구분하여 묘광의 형태변화와 출토유물의 조합상, 부장위치 등을 분석하였다¹³⁾. 여기서는 모든 단계에 걸친 유물 부장 위치의 변화는 미세하지만, 3단계가 되면 묘광의 형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 이 단계의 목관묘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목관묘라고 파악하였다.

권지영¹⁴⁾은 목관묘와 목관묘의 부장품 중에서 검과 모의 부장과 농공구류의 부장 등을 살펴 상위계층의 묘를 도출하였다. 즉 검과 모의 복수부장과 단수부장, 그리고 주조철부와 판상철부가 함께 부장된 것과, 주조철부나 판상철부 중 한가지만 부장된 경우 등을 분석하여 영남지역 목관묘단계를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영남지역 최상위 I 계층 분묘는 팔달동유적, 임당유적, 다호리유적, 사라리유적, 조양동유적, 양동유적에서 확인된다고 보았고, 도항리유적과 황성동유적의 목관묘는 II 계층 이하의 분묘에서만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임동재는 삼한시대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 황성동일대에서 조사된 목관묘와 옹관묘 등에서 출토되는 주머니호를 분류하여 강변로유적에서 조사된 1,2호 옹관묘에서 3호 목관묘 다시 2,4호 목관묘로 변천된다고 보고 있다¹⁵⁾.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목관묘에서 목관묘로 전환되는 시기 분묘의 성격과 유물 부장방식에 대해 편년을 하거나 또는 철기와 토기의 부장양상에 따른 목관묘의 성격을 살피고 있으며 목관에서 출토되는 철기부장이 증대됨에 따라 다른 유물의 부장양상이 변모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철기의 부장양이 많은 묘를 지배층의 묘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옥이나 구슬 다른 성격의 유물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연구의 시간적

12) 金大煥 2000, 「지배층묘를 통해 본 新羅 중심지역의 形成」 『科技考古研究』 第8號, 아주대학교박물관.

13) 이청규 2002, 「세형동검시기의 영남지역 묘제」 『세형동검문화의 제문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 5회 합동고고학회.

14) 권지영 2004, 「변·진한사회의 발전양상에 대한 연구 -목관묘에서 목관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임동재 2005, 「三韓時代 慶州 皇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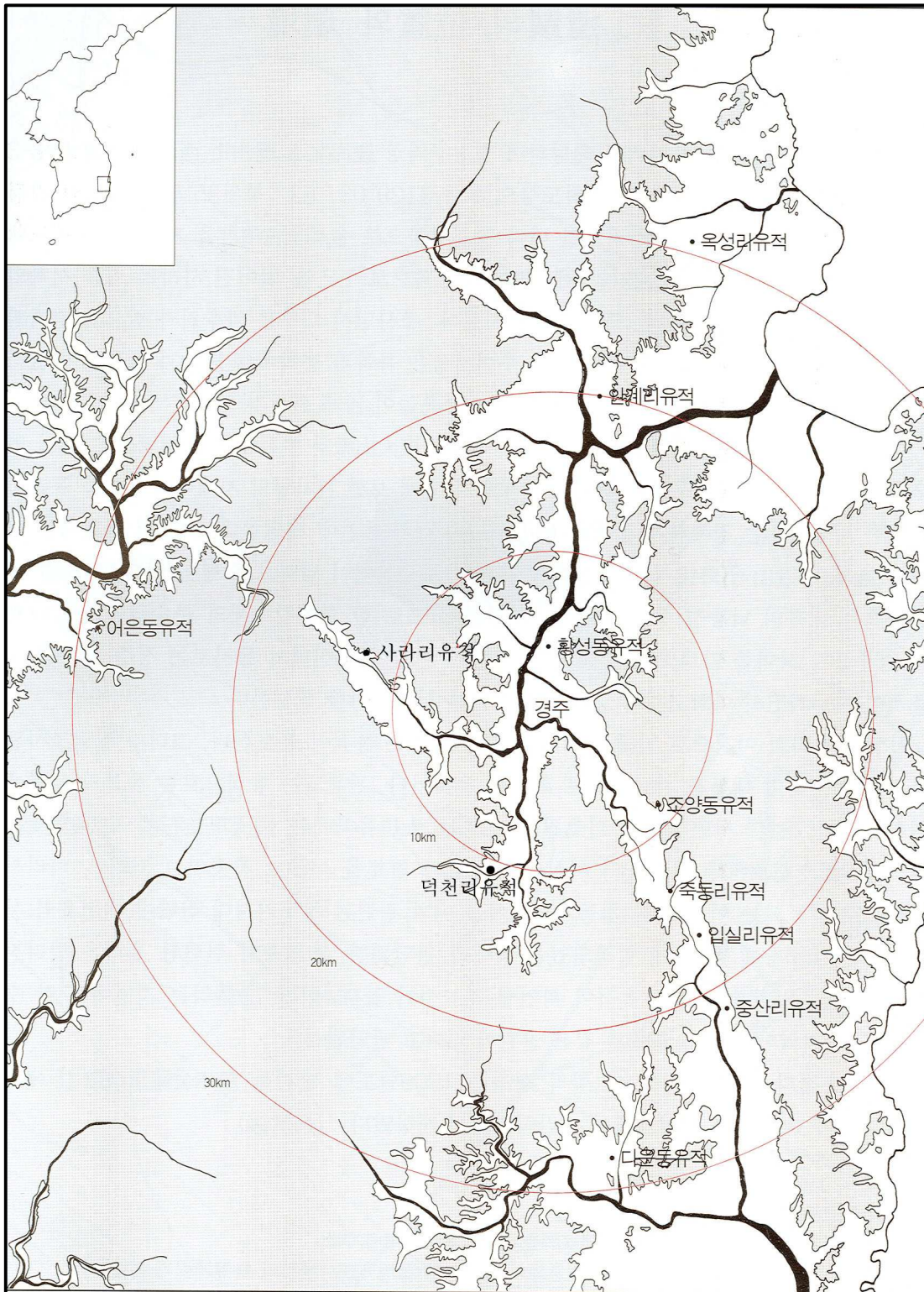
범위와 공간적인 범위를 삼한시대(B.C.1~A.D.2)의 경주지역 목관묘와 목곽묘 유구로 한정해, 『三國志』와 『漢書』에 기록된 三韓의 기록에 주목하여 우선 목관묘의 주요속성-조성유형, 부장위치, 묘광의 면적과 평면형태, 침향과 장축방향, 부장유물을 유형화시킨 뒤 목관묘내에서 확인되는 구슬 및 옥의 부장양상을 살펴 목관묘 유형에 따른 변천 및 신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遺蹟소개

1. 遺蹟概要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1980년대 조양동유적이 발굴·조사된 이후 1990년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적의 수가 증가되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의 수장급으로 인식되는 묘제가 경주 중심에서 조사되지 않고 영천으로 이어지는 사라리에서 수장급으로 보이는 130호분이 발굴·조사됨으로써 사로국의 중심을 사라리로 보는 견해가 대두 되었으며, 이후 각 유적에서 확인된 목곽묘를 중심으로 목관묘는 부수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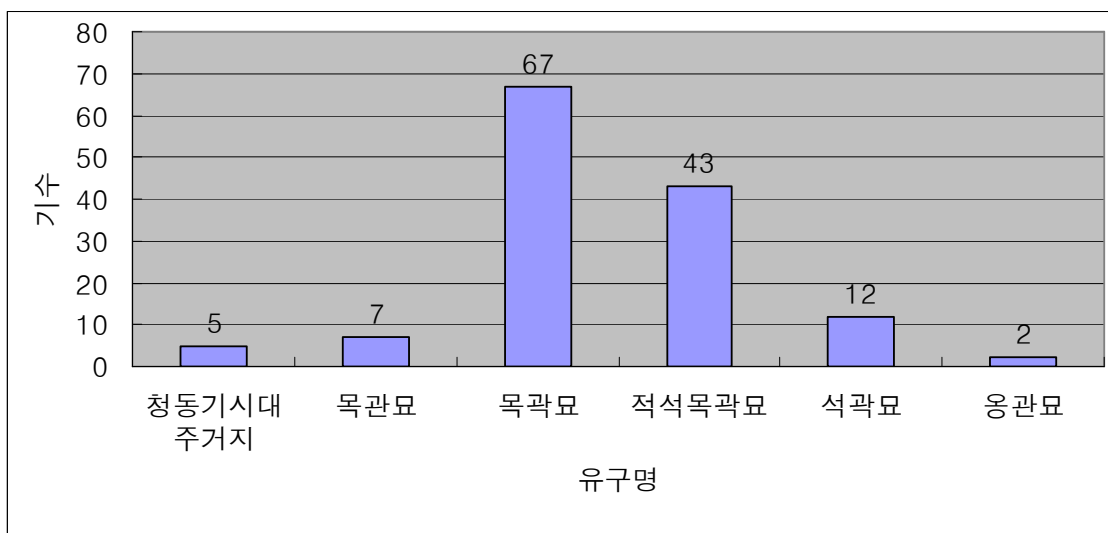
경주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목관묘유적은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곡간지역에 조양동유적이 대표적이며, 영천방면의 사라리유적과 경주시내에 황성동유적이 확인되며, 최근발굴조사가 완료된 언양방면의 덕천리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목관묘유적 뿐만 아니라 다수의 목곽묘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포항의 옥성리유적과 울산으로 이어지는 곡간지역에 분포한 구정리와 입실리 죽동리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으로 삼한시대로 추정되는 다수의 분묘유적이 경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곡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圖 1> 삼한시대 경주지역 주요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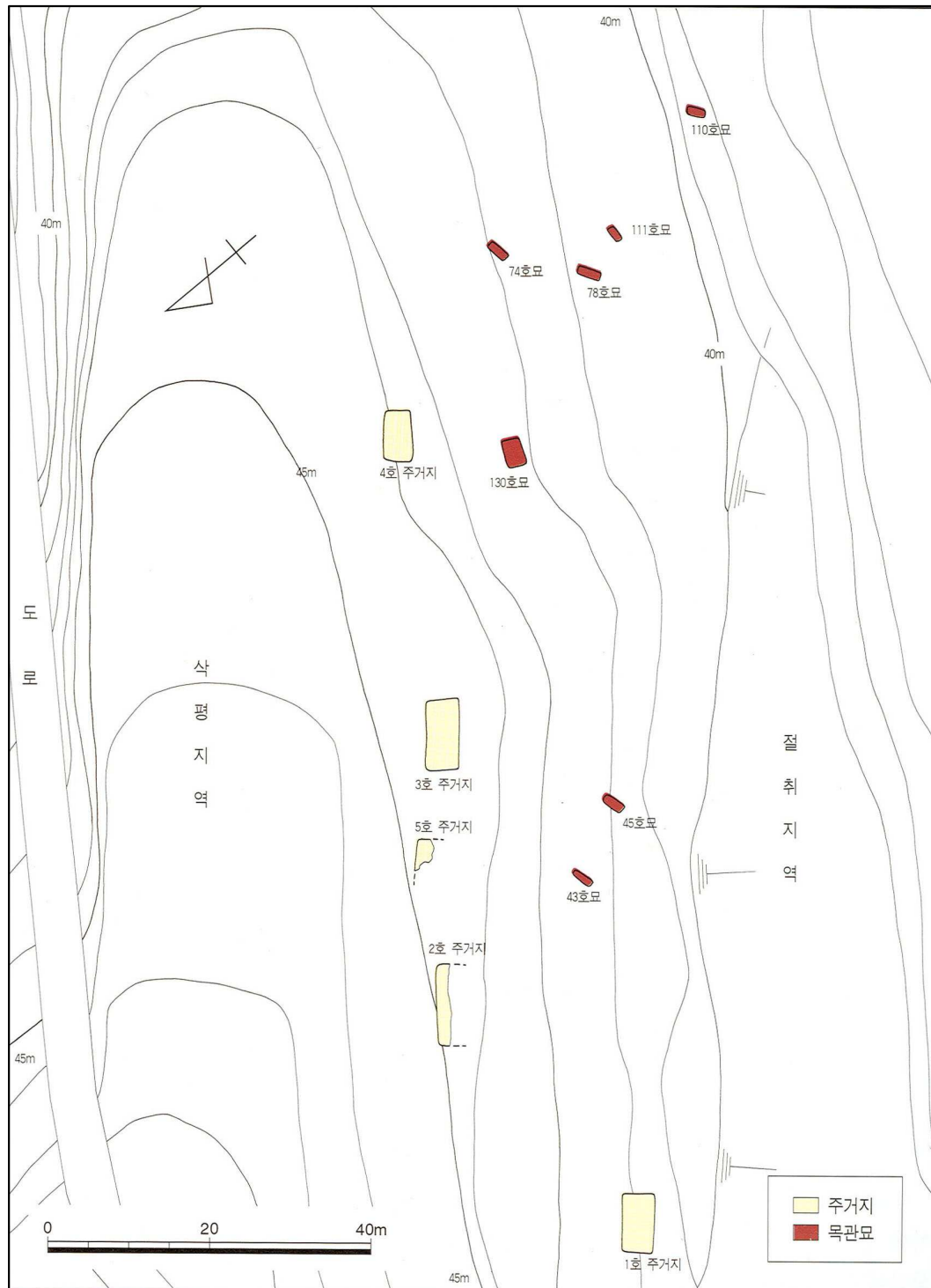
1) 舍羅里遺蹟

사라리유적은 경주시 서면 사라리 일대의 높고 낮은 구릉상에 분포하고 있는 원삼국·삼국시대의 대규모 분묘유적이다. 이 유적은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 정지작업 중 상당수의 유구와 유물이 훼손되어 지표면에 노출됨으로서 긴급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 약 4,000평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1995년 11월 8일부터 1996년 4월 1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주거지 5기와 130호를 비롯한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7기, 원삼국시대의 목곽묘 67기, 적석목곽묘 43기, 석곽묘 12기, 석곽묘 12기, 옹관묘 3기 등 다종다양한 유구 137기가 확인되었다.



<圖 2> 사라리유적 유구분포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의 구조는 내부 토층의 양상이나 묘광 바닥 면에서 확인된 목관의 腐蝕痕을 통해 불 때 판재로 결구된 조립식 목관으로 추정되며 평면 형태는 130호분의 경우 ‘Ⅱ’字形이다. 목관의 규모는 130호분을 제외한 6기의 목관묘로 길이 207~177cm, 너비 65~52cm 내외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면적은 130호분 7.63㎡, 나머지 6기의 목관묘는 2~3.6㎡로서 130호분의 면적이 다른 목관묘의 2~3배가 된다. 목관의 깊이는 130호가 100cm이며, 나머지 목관묘는 40~60cm 내외로서 깊지는 않다. 130호는 다른 목관묘에서 확인되지 않는 腰坑施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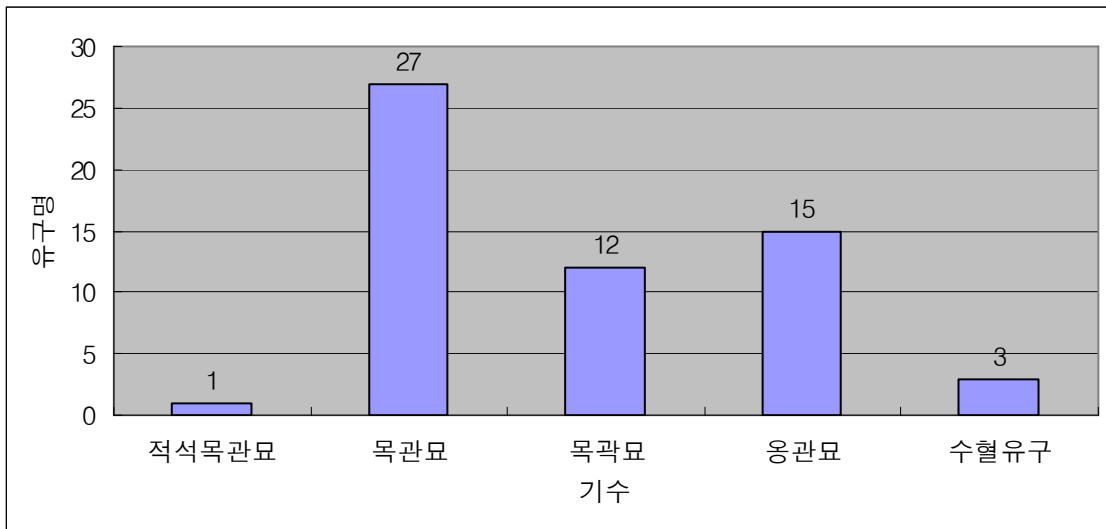
<圖 3> 사라리유적 목관묘유적 위치도

갖추고 있다¹⁶⁾.

사라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나지막한 구릉의 남사면 중간부분에 크기 332×230×100cm의 130호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쪽사면과 동쪽사면에 군집 형태로 3m미만의 목관묘가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크기 3m미만의 목관묘들은 군집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수장묘로 추정되는 3m이상의 목관묘는 단독으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 朝陽洞遺蹟¹⁷⁾

조양동 유적은 경주시 조양동 627·634·641번지 일대에 동서로 긴 낮은 구릉지상에 넓게 분포한 원삼국시대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분묘유적이다. 1977년 11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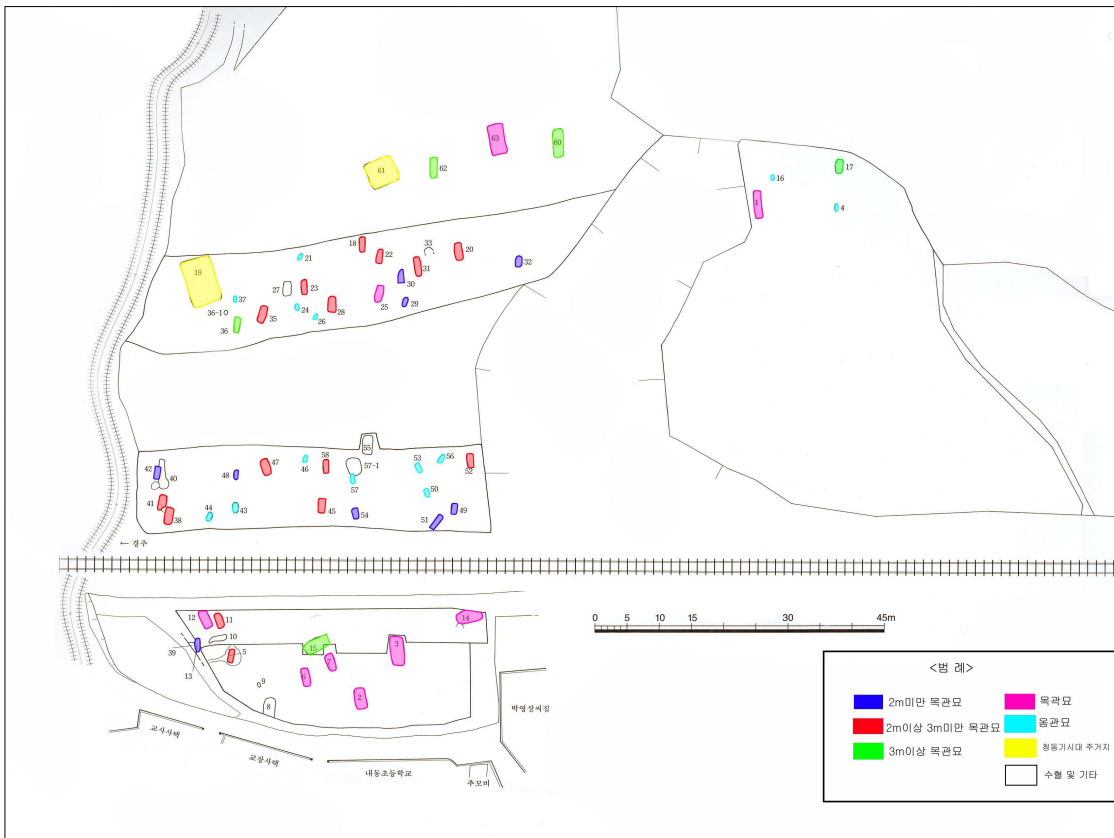
<圖 4> 조양동유적 유구분포

을 개축하기 위해 기존의 가옥을 철거하고 집터를 고르던 중 유개대부장경호 등 20여점의 유물이 우연히 발견됨으로서 유적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5차에 걸쳐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목관묘 27기·목곽묘 16기, 옹관묘 17기, 적석목곽묘 1기, 석곽묘 7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77기의 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함

16)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慶州舍羅里遺蹟Ⅱ-木棺墓, 住居址』.

17) 國立慶州博物館 2003, 『慶州 朝陽洞 遺蹟Ⅱ』.

계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형식의 분묘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어서 경주지역 선사와 고대의 묘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圖 5> 조양동유적 유구위치도

발굴된 목관묘는 묘광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띠거나 폭이 좁은 장방형을 갖춘 것으로 묘광의 길이는 2~3m이고 폭은 1.5m내외 깊이는 1.2m정도로 깊은 편이다.

조양동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모두 27기로 시기와 성격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5호묘와 11호묘, 38호묘이며, 목관에서 목곽으로 전환되는 60호묘를 들 수 있다.

조양동 유적의 경우는 고분 입지의 변천이 대체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終末期의 목곽묘들 중 일부가 고지대쪽의 목관묘 주위에 만들어지기도 하여 差異를 보인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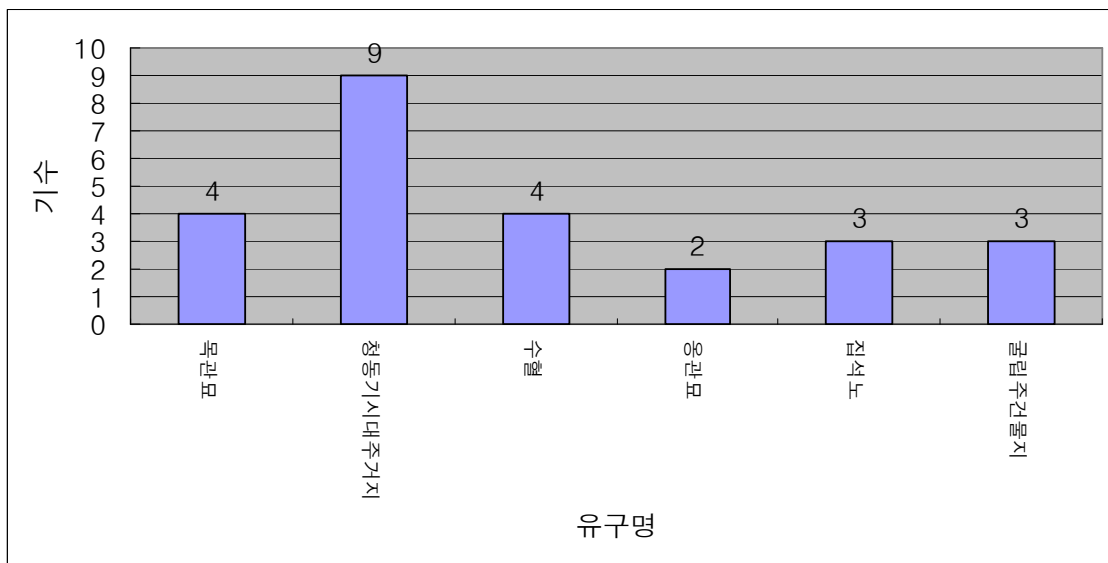
목관묘의 유형에 있어 대부분의 유형들이 고지대와 저지대에서 조성되어 지고 있

18)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p.214.

으나 저지대에서는 일부 목관묘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고지대 능선에서는 3m 미만의 목관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2m미만의 목관묘와 2m이상 3m 미만의 목관묘들이 계층화가 이루어져 조성된 것이 아니라 동등의 입장에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집단 속에서 상위분묘인 38호와 60호묘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 皇城洞遺蹟¹⁹⁾

황성동유적은 1985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1기의 三韓時代 木槨墓가 수습조사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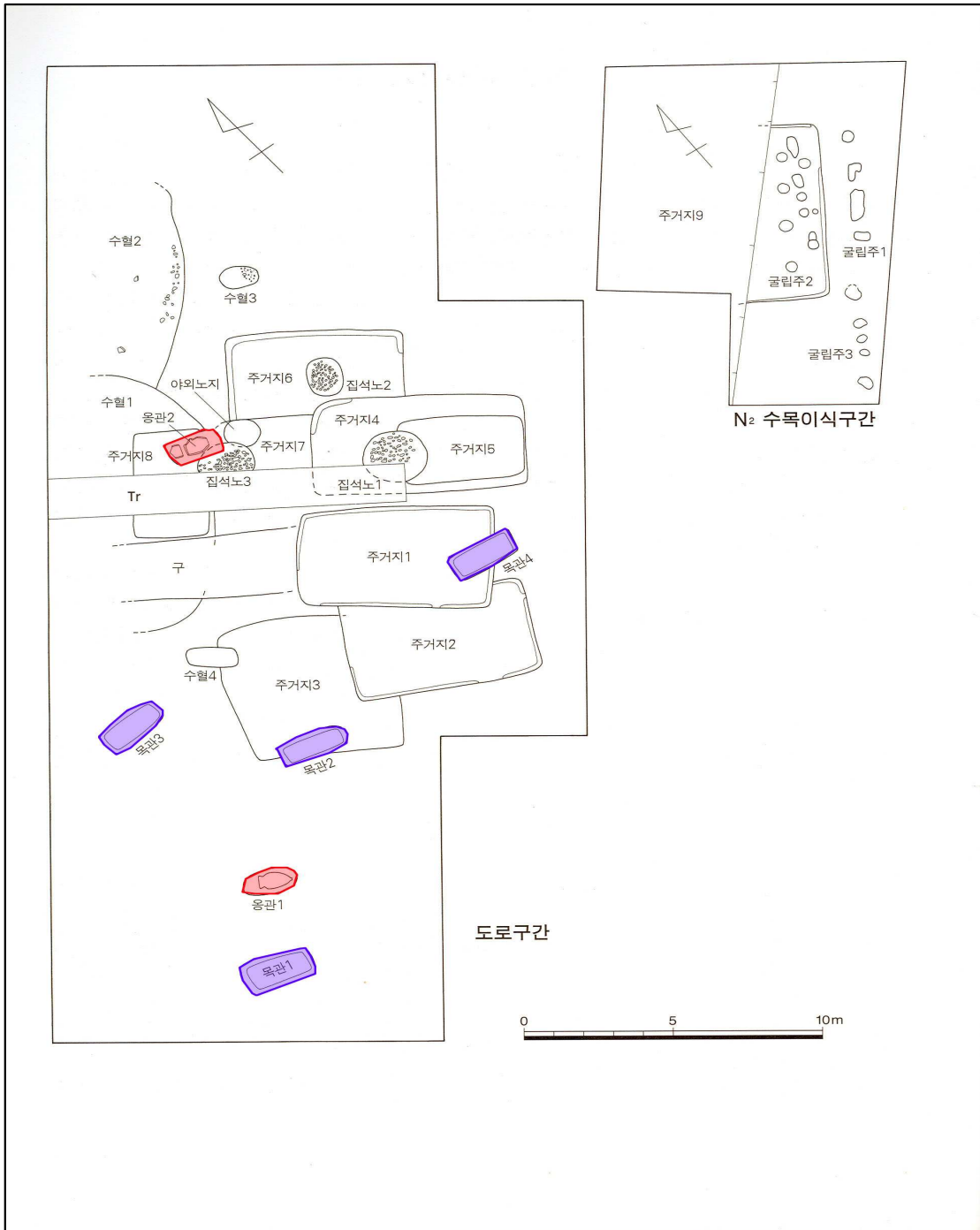


<圖 6> 황성동 강변로유적 유구분포

이 후 삼한시대유적은 1990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주관이 되어 경북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의

연합발굴조사단에 의한 황성동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삼한, 삼국, 통일신라시대까지 매우 다양한 유적들이 밀집되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994년도에 황성동 545번지 일대에 대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등의 연합발굴조사에서 목곽묘 52기 옹관묘 14기, 토광묘 1

1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3, 『慶州 皇城洞 遺蹟 I -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圖 7> 황성동 강변로유적 유구 위치도

기가 확인되었다. 황성동유적에서 목관묘가 확인된 유적은 경주 강변로개설구간유적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일대와 용강동의 일부지역이며 경주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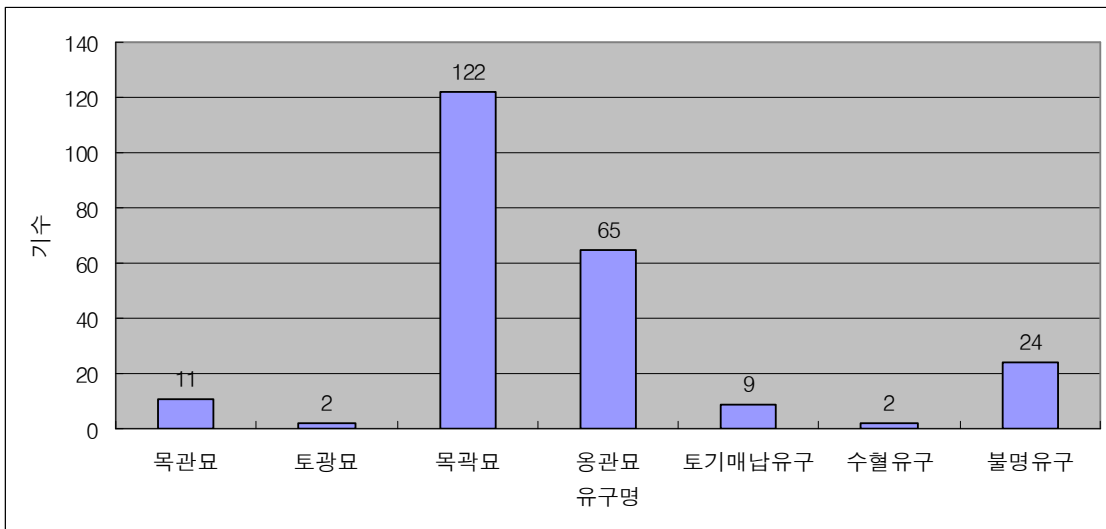
지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황성동유적 주변의 형산강 강폭은 북천과의 합류지점에서 350m로 넓어지고 강물이 완만하게 흐르고 있으며, 물줄기가 강 양안 두갈래로 그 안에 길이 800m, 폭 250m의 넓은 砂丘가 형성되어 있다. 황성동유적은 형산강이 흐르면서 퇴적시킨 해발 30m 내외의 충적대지로서 강의 방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발굴조사 되었으며, 여기서 청동기시대주거지 9동, 야외노지 1기, 삼한시대 집석노 3기, 목관묘 4기, 옹관묘 2기, 수혈 4기, 삼국시대 굴립주건물 3동이 확인되었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4기로 모두 묘광면적 2m이상 3m미만으로 확인된 목관묘의 수량이 작아 전체적인 묘역이나 범위는 알 수 없으나, 출토된 유물이나 묘광의 형태로 볼 때 목관묘 집단의 묘는 모두 일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목관 서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덕천리유적

덕천리유적은 최근에 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으로 2004년 6월 18일부터 2006년 말



<圖 8> 덕천리유적 유구분포

까지 조사가 진행 완료되었다. 유적은 하상퇴적에 의한 선상지에 유구가 형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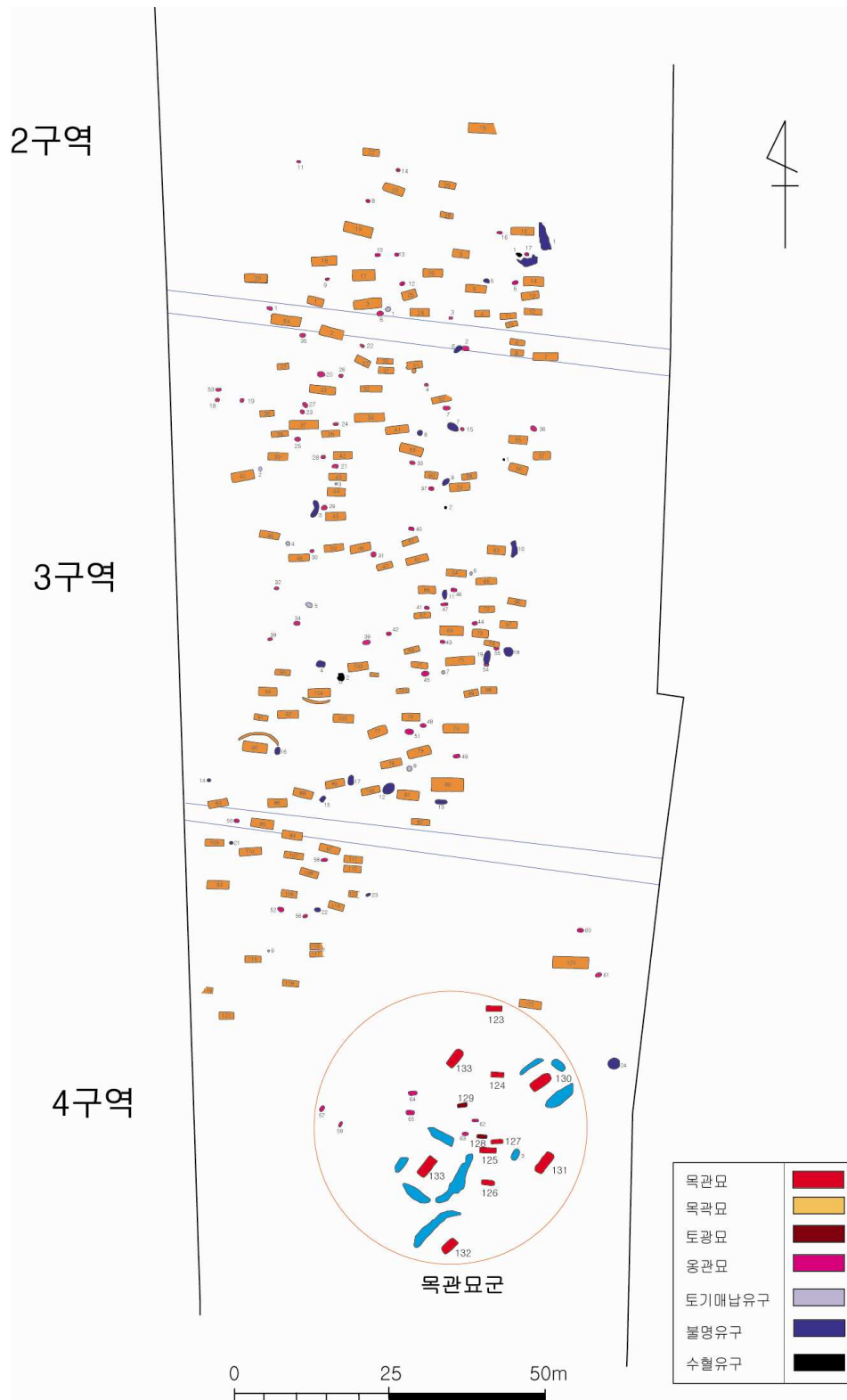
있다. 현재는 경지구획정리로 인해 원지형이 부분적으로 삭평되어 해발 62~63m의 평지를 이루고 있지만, 원지형은 형산강이 위치한 동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유구와 원삼국시대 분묘가 위치한 유적 중앙부분이 조금 높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원삼국시대 분묘관련 유구의 분포는 유적의 가운데부분(2~4구역)에 집중적으로 조영되었다. 대다수의 유구는 경지구획정리에 의한 삭평으로 경작교란층 제토과정에서 토기가 노출되며, 목곽묘의 경우는 묘광선과 목곽선이 함께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는 목관묘 11기, 목곽묘 122기, 옹관묘 65기, 토광묘 2기, 불명유구 24기, 토기매납유구 9기, 수혈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분묘군은 크게 목관묘군과 목곽묘군으로 나눌 수 있다. 목관묘군의 무덤은 목곽묘군의 남동편에 별도의 묘역을 가지고 옹관묘가 함께 조영되었다²⁰⁾.

덕천리유적은 <圖 8>의 유구분포현황처럼 대부분이 목곽묘이며, 이후 목관묘와 옹관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덕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눈썹형 및 ‘ㄷ’자형 및 ‘ㄱ’자형 주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주구 목관묘는 묘광면적 3m이상의 목관묘에서 대부분 확인되고 있으며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도 3m미만의 목관묘 보다 늦은 시기의 유물이 확인된다. 따라서 3m 이상의 묘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확인되는 마한지역 주구묘의 영향으로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내 경주 덕천리 I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圖 9> 덕천리 유적 유구 위치도

Ⅲ. 삼한시대 경주지역 묘제

1970년대 후반부터 영남 각 지역에서 토광묘들이 발굴되기 시작하여 이 시기 전 영남지방의 주요제는 토광묘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土壙墓와 함께 甕棺墓도 공존하고 있으나, 昌原 三東洞遺蹟에서와 같이 甕棺墓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외 다른 유적들에서는 옹관묘는 토광묘의 부수적인 존재로 되어 있을 뿐으로, 영남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던 辰·弁韓의 중심세력들이 토광묘를 그들의 주요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묘제는 목관묘와 목곽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분의 묘제는 보통 매납시설의 종류와 그 매납시설을 만드는 축조재료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매납시설은 널(棺), 덧널(木槨)로 나누고 이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널무덤은 나무널무덤(木棺墓), 돌널무덤(石棺墓), 독널무덤(甕棺墓) 등으로, 덧널무덤은 나무덧널무덤(木槨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등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널(棺)이란 피장자의 유해를 직접 넣는 용기(容器) 또는 운반하는 시설물이나 그것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널에는 신변유물(피장자가 착용한 장신구나 의기류)만 부장되고 다른 부장품은 부장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덧널(郭)이란 널을 수납(收納)하는 것이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외피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피장자와 피장자의 신변유물은 물론 다른 부장품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이 덧널에는 널을 그속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덧널 자체가 시신의 첫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널과 덧널이 모두 밀폐된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커다란 널이 있는 반면, 작은 덧널이 있어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나무로 널과 덧널을 만든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썩어 없어져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널은 한겹으로 만들어지나 덧널의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축조되는 경우가 있다. 덧널을 안덧널(內郭)과 바깥덧널(外郭)로 구성하고 그 안에 널을 넣는 경우, 바깥은 돌덧널(石槨)로 만들고 그 안에 덧널(木槨)을 설치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들인데 특히 삼국시대 경주의 최대형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의 경우는 3중으로 된 덧널 안에 널(木棺)을 수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것은 피장자의 신분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한대(漢代)에 황제는 구중덧널(九重郭), 제후는 오중덧널(五重郭)을 쓴다는 등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²¹⁾. 이들 묘제에 있어 목관묘는

21)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韓國考古學事典』 pp.209 ~ 210.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2세기에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며, 이후 목곽묘 집단에 의해 2세기 후반부터는 목곽묘가 목관묘를 대신하게 된다.

1. 木槨墓

목곽묘는 기원후 2세기부터 사용되어 5~6세기 적석목곽분까지 이어지는 사로국의 주요묘제이다. 목곽묘(덧널무덤)는 나무덧널(木槨)의 시설을 마련하고 매장한 것을 말하는데 백제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낙동강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덧널무덤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곽에 대한 사로국시기의 기록은 『三國志』魏書 東夷傳의 韓의 기록중 馬韓의 기록에 “그들의 장례에는 곽은 있으나 관은 사용하지 않는다²²⁾.”라는 것으로 보아 韓의 세 종족의 하나에 속하는 辰韓에 있어서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확인되는 목곽묘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묘는 부장품의 多量副葬을 전제로 한 埋葬主體部의 대형화가 특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계급발생 혹은 국가 형성시기에 보편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곽의 규모나 구조, 부장품의 양과 질은 신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목관묘는 입지에 따라 丘陵頂線部型, 丘陵斜面型, 平地型으로 구분되고, 규모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대형묘만 주로 조영되는 상층민의 묘역, 중·소형묘가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 그리고 소형묘만 조영된 하층민의 묘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곽의 구조는 네 벽면과 천정, 바닥 그리고 천정을 받치는 기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대 43호에서는 불에 탄 목곽의 天井板이 검출되었는데, 두께 8cm, 너비 25cm의 판재였고 상부에서는 통나무흔적도 일부 확인되어 판재의 뚜껑상부에는 다시 통나무를 가로질렀던 것으로 추측된다²³⁾. 목곽에 설치된 기둥은 목곽 상부에 덮은 봉토의 하중에 의해 목곽의 천정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목곽에서 확인되는 充填土는 대형목곽묘의 경우 목곽의 存續과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는 목곽의 외부를 흙으로 막채움하면 雨水에 의한 침식으로 그 토압에 의해 목곽이 내부로 무너지게 되는데, 충전토의 폭이 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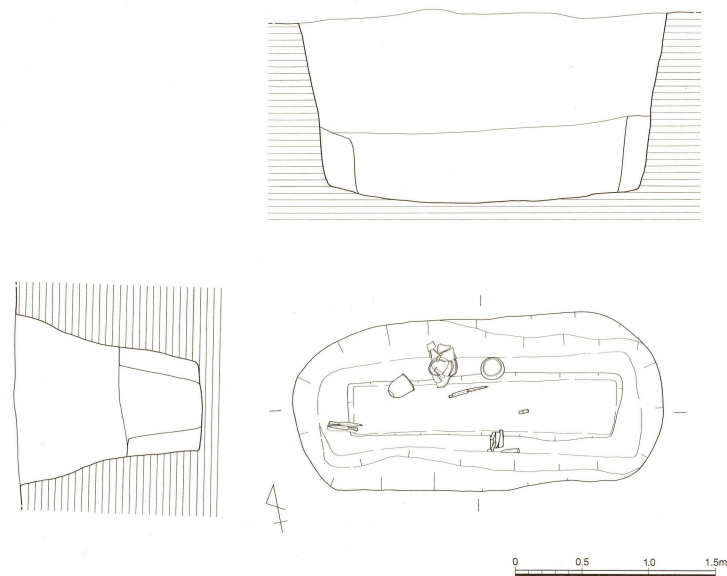
22)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葬有槨無棺”

23)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蔚山下垔遺蹟-古墳Ⅰ』. 여기서 제시한 수치는 발굴시 나타난 목탄의 수치이므로 실제의 나무나 판재의 크기는 목탄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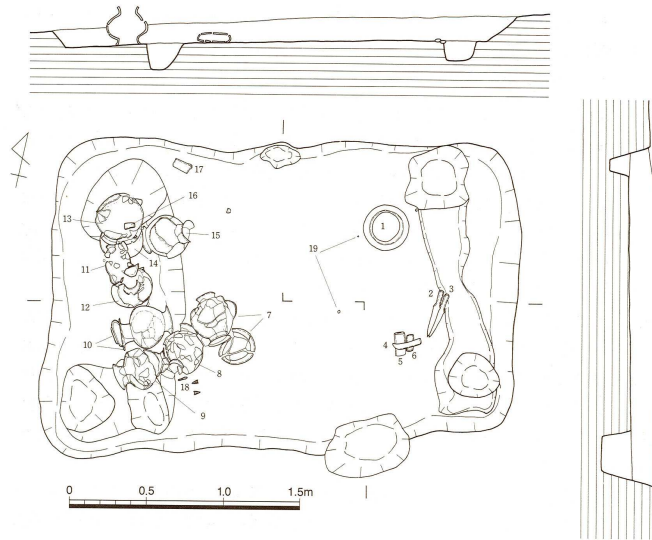
깊어 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압은 크게 된다. 따라서 목곽에 따른 발전상을 간취할 수 있다.

목곽묘의 바닥은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과 돌로서 屍床을 마련한 것으로 구분되며, 시상이 없는 것도 본래는 가죽이나 草本類로 엮은 돛자리를 깔거나 목제 시상 시설을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 흔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한시기의 목곽묘에는 屍床石을 까는 경우가 없으며, 4세기대에 이르러서 김해지역의 목곽묘에 시상석이 나타난다. 다만, 삼한시기에는 시신의 아래에 판상철부나 철모 등의 철기류를 까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목곽의 요소인 副槨의 발생은 富의 개인 집중화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하나의 목곽 내에 부장칸을 설치하여 토기나 철기 등의 용기류를 부장하던 것이 발전하여 독립된 부곽으로 출현하였다고 판단되며 異穴主副槨式과 同穴主副槨式으로 크게 구분 된다. 즉 同穴主副槨式은 같은 묘광내에 主·副槨을 나란히 따로 설치하고 사이를 돌이나 흙 등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른 시기의 부곽으로 볼 수 있다.



<圖 10> 木棺墓 예 (조양동 28호 목관묘)



<圖 11> 木槨墓 예(조양동 2호 목곽묘)

2. 木棺墓

목관묘(널무덤)는 한국식동검문화와 함께 한반도 남부지방에 등장한 무덤의 형태로서 묘광을 파고 시신을 담은 목관만을 갖춘 무덤을 말한다²⁴⁾. 즉 장방형의 무덤구덩이를 파고 따로 나무널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한 다음 그 널을 무덤구덩이 안에 묻은 것²⁵⁾으로, 묘광의 크기는 사람의 인체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로서 길이 2~3m, 너비 1m내외이다. 이러한 목관묘는 목관의 외부와 상부를 돌로써 쌓거나 채운 것과 흙만으로 채운 것이 있다. 목관의 부재는 통나무와 판재로 구분되며, 목관의 아래에는 부장품을 넣기 위해 凹坑을 설치한 것도 발견되고 있다. 목관묘는 목곽묘와는 달리 깊은 묘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관의 종류는 義昌 茶戶里遺蹟 1호묘에서 발견된 통나무관처럼 통나무를 잘라서 반을 자른 후 통나무 안을 도구를 사용한 뒤 다시 덮은 형태와, 김해 대성동유적에서 발견된 판재를 결구 한 판재관이 형태가 남아 있으며, 경주지역 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의 경우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어, 묘광의 형태나 목질 혼등으로 볼 때 경주지역 목관묘에서도 통나무관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목관묘는 조양동유적과 황성동유적, 사라리유

24) 주3의 논문.

25) 주24의 책. pp. 210 ~212.

적, 덕천리유적으로 묘광의 형태 분류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경주지역 목관묘의 형식을 알아 보기위해 이재현의 형식분류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돌 시설이 있는 것은 I 류, 없는 것은 II 류로 크게 구분하고, 각 류는 다시 소형식으로 구분한다. I 류는 목관외부의 돌 채움을 기준으로 석곽처럼 돌을 쌓은 것(1), 돌을 무질서하게 채운 것(2), 목관외부의 돌 채움이 없이 목관 상부에만 적석이 있는 것(3)으로, 그리고棺의 형태에 따라 통나무관은a, 판재관은b로 구분한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대부분이II류형이며, I 류 3형에 속하는 것은 경주조양동 5호분으로 묘광 속에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 사이에 돌을 채운 형식으로 목관의 상부 또는 목개의 할석을 덮은 유구로 추정된다.

각 유적별로 확인되는 목관묘의 묘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모두 7기로 목관묘 뿐만아니라 목관목곽묘인 130호분까지 포함된다. 확인된 목관묘 모두 II류형으로 모두다 판재관인 b형식에 속한다.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대형목관묘인 130호분과 소형목관묘 들로 나누어지며, 사라리 목관묘 단계 I 기와 II기에 해당한다²⁶⁾.

조양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적석목관묘 1기와, 목관묘 27기이며, 5호묘는 적석목관묘로 I 류3류형다. 그 외 목관묘는 II류형으로 13호묘와 같이 통나무관이 쓰인 IIa식과 IIb식이 혼재되어 함께 쓰여지고 있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4기로 II류형에 속하며, 판재관인 b형식에 속한다. 황성동 목관묘 중 확인된 2호묘는 목관의 보강에 강돌을 사용하였으며, 상부적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석목관묘에서 그 계통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I 2b형식에 속한다.

덕천리유적은 최근에 발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II류형에 속하며, 통나무관인 a식과 판재관인 b식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덕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주구가 ‘一’자 또는 ‘ㄷ’자 형태로 확인된다. 주구는 배수 역할뿐만 아니라 봉토를 쓸

26) 사라리 목관묘 I 기는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형태가 圓形이며, 주체부의 형태는 橫球形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대 외반지점은 口頸部の 중앙을 기준으로 중앙의 형태는 橢圓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대 외반지점은 구경부의 중앙을 기준으로 중앙의 下半部에 위치한다. 주머니호는 胴上部의 형태가 內灣한다.

사라리목관묘 II기는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口緣端의 형태가 凹面으로 되어있고, 동체부의 형태는 卵形에 가깝다. 최대 외반지점은 구경부의 중앙을 기준으로 중앙의 上半部에 위치한다. 주머니호는 내만도가 더욱 심해진다. 주조철부의 평면형태는 無肩式이며, 釜末端部가 원형인 것이 해당한다.

때 굴착하여 봉토의 흙으로도 쓰였다. 대부분의 유적이 마한지역인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울산 다운동유적에서도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반원형의 주구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발굴조사가 완료된 덕천리유적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런 목관묘는 기원 후 2세기 목곽묘가 입지하면서 목관묘와 목곽묘적인 요소가 함께 쓰이게 된다. 즉 사라리 130호분이나 조양동 60호처럼 묘광의 형태가 넓어지고 또한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도 대량 부장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IV. 경주지역 목관묘

본 장에서는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의 묘광 면적과 유물의 부장 양상에 따라 경주지역 각 집단의 상위 계층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목관묘 묘광의 면적에 따라 3~2개 층으로 구분한 뒤 구슬 및 옥의 부장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살핀 후 목곽의 구슬 및 옥의 출토량을 살펴 사로국의 파생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목곽묘에서 확인되는 구슬 및 옥의 부장량을 살펴봄으로서 목관묘와 목곽묘의 차이성을 살펴보고자한다.

1. 경주지역 목관묘 분석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목관묘 유적은 영천방면으로 이어지는 곡간지대에 위치한 사라리유적과 울산방면의 조양동유적 그리고 경주시내의 황성동유적과 최근발굴조사가 완료된 덕천리유적이 있다.

먼저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에 대해 면적과 깊이 등 개별적인 목관묘의 속성에 따라 상위분묘를 도출하도록 하며, 이후 상위계층과 하위 계층의 유물의 부장과 형식을 살펴 경주지역 목관묘의 계층화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의 묘광면적에 따라 길이 2m 미만의 목관묘를 A유형으로, 2m이상 3m 미만의 목관묘를 B유형으로, 3m이상의 목관묘를 C유형으로 분류한 뒤 『後漢書』의 東夷列傳의 韓條와 『三國志』魏書 東夷傳 馬韓條에 기록된

“以嬰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縣頸垂耳，不以金銀錦繡爲珍”²⁷⁾

에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마한의 기록이지만 삼한 대부분의 사회가 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묘광의 크기를 살펴본 뒤 옥과 구슬의 부장 상황에 따라 유적별 계층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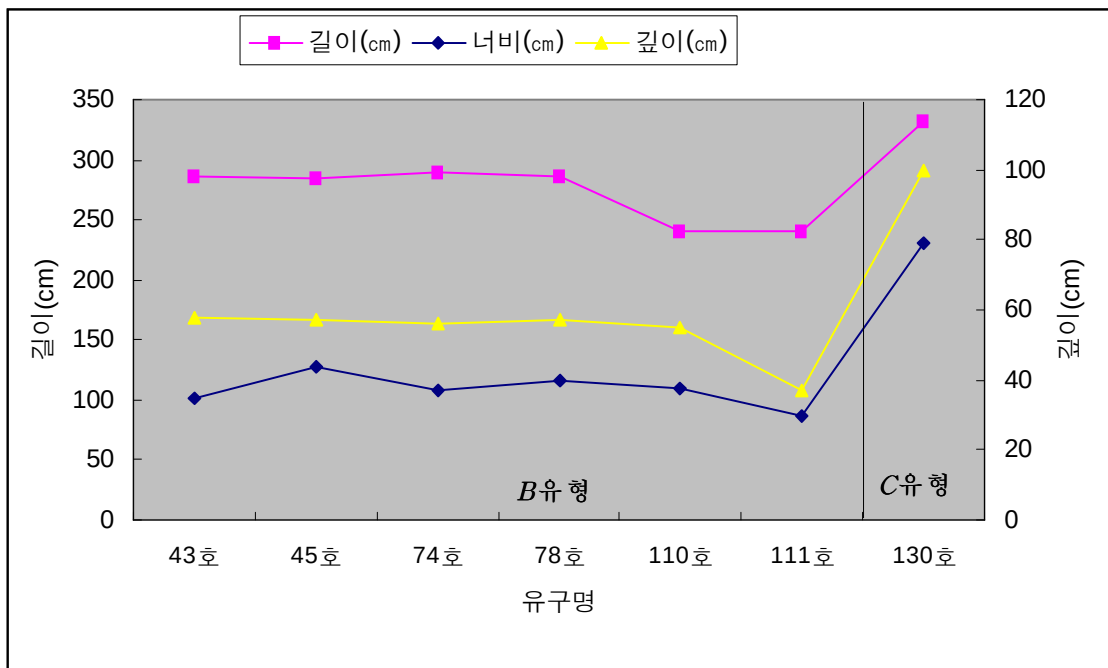
먼저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모두 7기이며, 이 중 대부분은 2m이상 3m미만의 B유형이 대부분으로 묘광의 면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C유형에 속하는 3m이상의 사라리 130호분은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시기의 묘제로 묘광의 크기도 장대화되며 유물 부장에 있어서도 철초동검을 비롯한 방제경 등 다량의 부장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라리유적 집단에서는 목관 비율이 2m 미만인 A유형의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1> 사라리유적 목관의 속성

유적	속성	장축방향	묘광의 크기 (cm)			유물			
			길이	너비	깊이	청동기	철기	토기	옥·구슬
B	43호	N-82°-E	287	101	58		철검,철기편,철부	단경호	경식
	45호	N-90°-E	284	127	57		철검,철모,철부,철검		경식
	74호	N-81°-E	289	108	56		주조철부2		경식
	78호	N-62°-E	286	116	57		철부	조합우각식파수부호, 원저단경호, 원저호1,주머니호	
	110호	N-57°-E	240	110	55		주조철부,단조철부	조합우각형파수부호2,장유형용,蓋	경식
	111호	N-78°-E	240	87	37		철검,철검편		
C	130호	N-68°-E	332	230	100	세형동검,검과부,청동환,호형대구2, 동포2, 방제경2,청동소환2,원형유문동기	철검,청동병부장식소도,관상철부61매,철북,철촉,철검3,철부4,마구류일식,철모	단경호,주머니호, 조합우각식파수부호,유개연철용,대호	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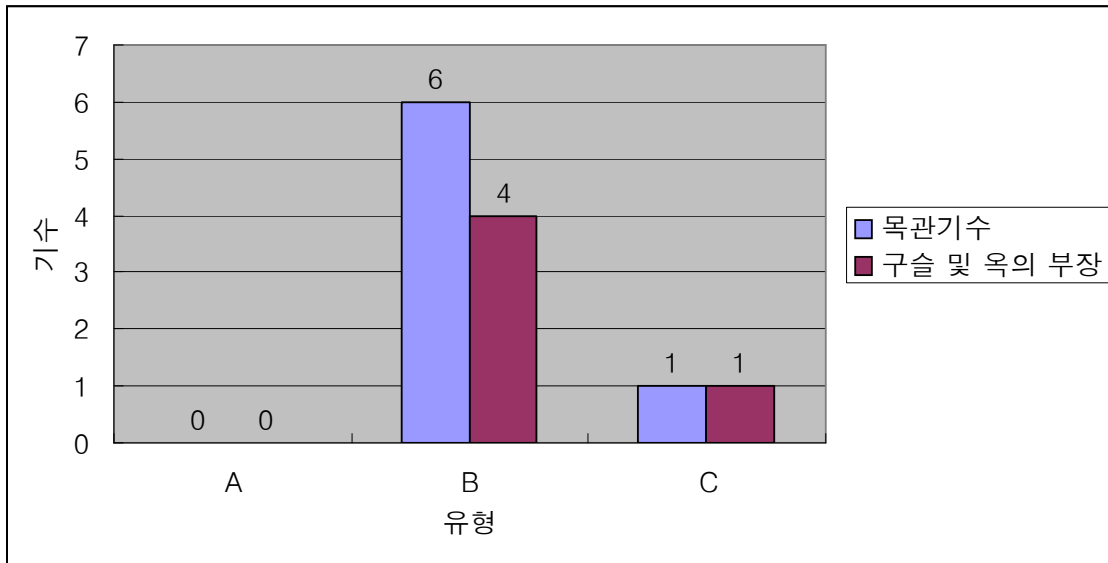
27)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金 銀과 錦 繡는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 계층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묘광의 면적에 따른 분류는 가능하며 이는 유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봄으로서 계층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면적에 따른 B유형의 깊이는 100cm미만으로 후대로 오면서 삭평되었다 하더라도 100cm미만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창원다호리유적의 깊이 1m가 넘는 목관묘와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C유형인 사라리 130호는 탁월한 부장양상을 보이며 깊이 또한 목관묘가 가진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목곽으로 이행되는 전환기적인 묘제에 해당한다.



<圖 12> 사라리유적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구분포도

유물의 부장에 있어 B유형의 목관은 소량의 철제무기와 농공구류, 그리고 토기를 부장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경식 또한 5기의 묘 중 3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사라리 130호에서 경식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읍락이나 국읍의 수장묘로 추정될 만큼 상당한 유물의 부장양상을 가지고 있어 B유형의 목관묘와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 유형의 B유형과 C유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상위계층 또는 지배자의 특성상 130호는 사라리유적 집단의 읍락의 수장이나 또는 그 이상의 묘로 추정 될 수 있다.



<圖 13> 사라리유적 구슬 부장현황

이와는 달리 조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주축방향이 대부분 동-서 방향으로 장방형과 말각장방형의 목관묘가 혼재되어 있으며, 조양동 60호처럼 4m가 넘는 형태도 확인되고 있다.

조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 중 2m 미만의 A유형 목관묘는 조양동 13, 29, 30, 32, 42, 48, 49, 51, 54호로 확인된 전체 목관묘 29기 중 9기에 해당한다. A유형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내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 옥 및 구슬이 부장되는 것은 모두 7기로 29, 32, 42, 48, 49, 51, 54호가 해당한다. A유형에서 확인되는 점은 51호에서 철도자 1점이 부장된 점을 제외하면 철기유물의 부장이 없으며, 토기에 있어서도 와질토기편 및 단경호 등 소량의 토기가 부장되는 양상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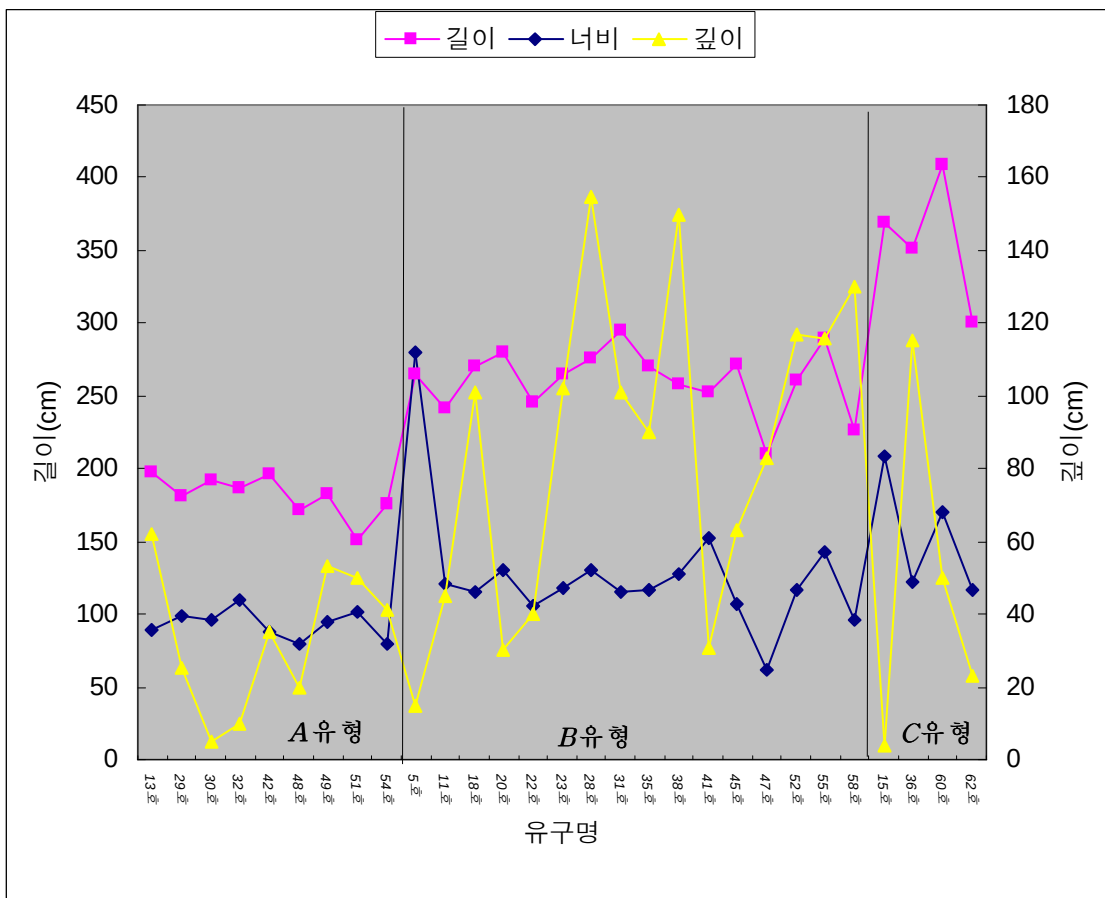
<표 2> 조양동유적 목관의 속성

유적	속성	장축방향	묘광의 크기 (cm)			유물			
			길이	너비	깊이(잔존)	청동기	철기	토기	장신구
A류	13호	동-서	197	89	62			점토토기, 토제 원판	
	29호	동-서	181	99	25			단경호	수정, 유리옥1련
	30호	동-서	192	96	5			와질토기편	

	32호	동-서	187	110	10				유리구슬
	42호	동-서	196	88	35			유개대부호	수창옥
	48호	동-서	172	79	20				유리옥40
	49호	동-서	182	94	53				유리옥1024
	51호	동-서	151	102	50		철도자		수창옥
	54호	동-서	175	79	41				옥122
B류	5호	동-서	265	280	(13~15)	동령	철검, 환두도자, 철모, 철령, 철검, 철과, 철모, 주조철부2, 판상철부	과수부장경웅, 소형용, 흑색마연장경호, 대각편	
	11호	동-서	242	121	(45)		궐수문철기, 주조철부5, 단조철부, 판상철부, 철검, 철모, 철착, 철사	과수부장경웅	
	18호	동-서	270	115	101		철검	단경호	유리구슬
	20호	동-서	280	130	(30)		철검, 철부	단경호	
	22호	동-서	245	105	(30~40)				유리구슬
	23호	동-서	265	118	102		철검, 철부		경식(유리구슬)
	28호	동-서	276	130	155		철검, 철부, 철착, 철사2, 주조철부편	단경호, 주머니호, 용형토기	
	31호	동-서	295	115	101			단경호, 조합우각형과수부장경호	유리구슬
	35호	동-서	270	116	90		철부	장경호	
	38호	동-서	258	128	150	청동검과두식, 동환, 사유경, 조명경, 일광경	판상철부8, 철사, 철도자, 철검, 주조철부5, 철반, 철검, 철도자, 이형철기	조합우각형과수부장경호, 단경호2, 소형용,	옥
	41호	동-서	253	152	(31)		철검,	대부호, 단경호	
	45호	동-서	271	107	63		철촉2, 철검, 철모		옥구슬
	47호	동-서	210	62	83			장동용	수창제절자옥4, 유리제옥499
	52호	동-서	260	117	117			주머니호, 철기군(철검2, 철부, 철사, 철촉, 철모)	
	55호	동-서	290	142	116		철모, 철촉5, 철부, 철검, 철사	소용	경옥
	58호	동-서	226	96	130		철부, 철검	호, 주머니호, 고	

								배	
C류	15호	동-서	369	209	(4.1)		주조철부	와질토기편	
	36호	동-서	351	122	115		철부	파수부장경호, 단경호,주머니호	
	62호	동-서	300	117	23		철검,철검,철부,철모2,철반, 철검편		
	60호	동-서	409	170	50		철검,철검,철부,철모2,철반, 철검편	항아리,주머니 호,	
기타	33호	동-서	잔존	128	(5)			파수부장경호	

B유형은 조양동 유적의 목관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전체 29기 중 16기가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목관묘는 조양동 5, 11, 18, 20, 22, 23, 28, 31, 35, 38, 41, 45, 47, 52, 55, 58이며 유리 및 옥이 부장되는 것은 8기로 A유형 목관이 절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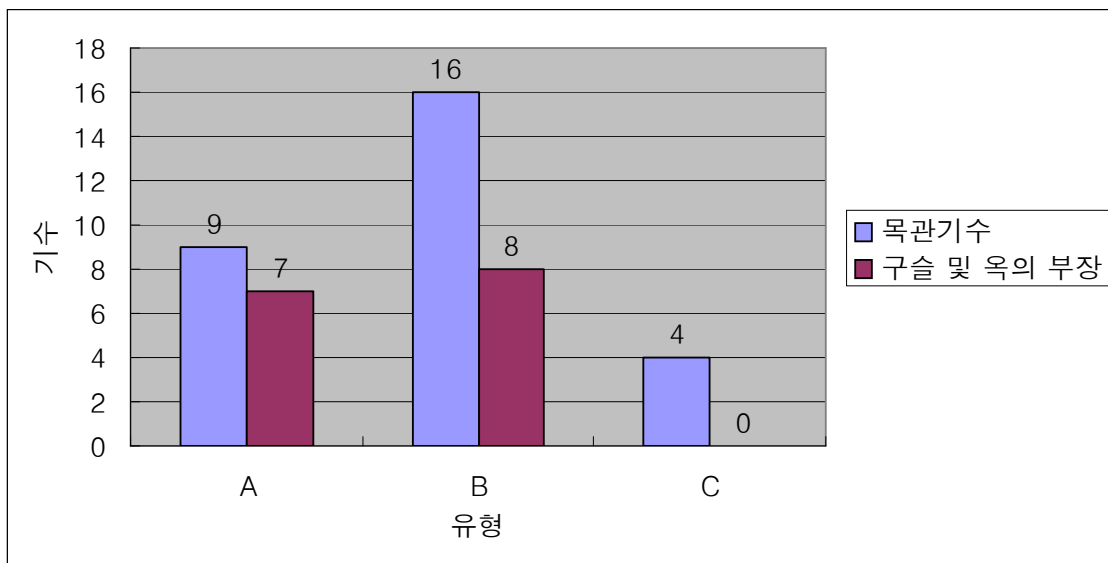
<圖 14> 조양동유적 묘곽의 면적에 따른 유구분포도

넘는 유리 및 옥의 부장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절반에 해당하는 목관묘에만 부

장된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유리 및 곡옥이 확인된 목관묘는 18, 22, 23, 31, 38, 45, 47, 55 호이다. 유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A유형과는 달리 철기나 토기의 부장이 많아지며 조양동 유적의 지배자묘로 추정되는 38호묘에서 일광경·조문경 등의 외래문물과 판상철부가 부장되고 있다. 이는 B유형이 조양동유적의 중위나 상위 계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15, 36, 60, 62호가 이에 해당하며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시기의 목관묘로 추정되며 묘광의 면적에 있어서도 다량의 유물을 부장할 수 있게 커지고 있다. 옥 및 유리구슬이 부장되지 않았으며, 철기류가 다수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의 면적 및 유리제 및 옥의 부장양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목관묘는 비슷한 면적과 부장양상을 가지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와 B유형에서는 옥과 유리구슬이 다수 부장되고 있어 『三國志』의 기록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철기나 청동기가 신분 및 부를 과시하는 것이라면 유리와 옥은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A유형을 평민계층으로 B와 C유형을 상위계층 및 조양동 지배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圖 15> 조양동유적 구슬부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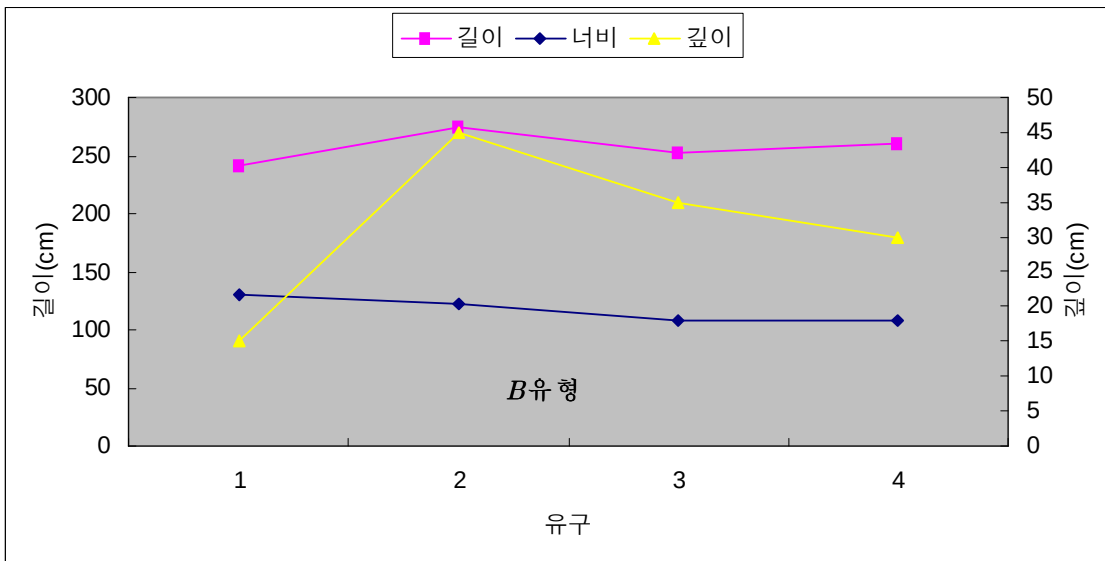
황성동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4기로 황성동 강변로유적에서만 확인되었다. 목관묘

는 3m미만의 B유형으로 장축방향 대부분이 북서 방향으로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 황성동 강변로유적 목관의 속성

유적	속성	장축방향	묘광의 크기			유물			
			길이	너비	깊이	청동기류	철기	토기	옥·구슬
B	1호	N-71°-W	240	130	(15)		철검,철모,철검	와질토기	
	2호	N-78°-W	274	123	45		관상철부,철모, 철부,철검,철검, 철부,철촉7	주머니호	경식,이식
	3호	N-80°-W	253	108	35		철검,철모,철촉, 철사,단조철부, 주조철부,철촉 5	주머니호	
	4호	N-85°-W	260	108	30		철부,철검	단경호,주머니호	

유물의 부장양상에 있어 경식이 부장된 것은 강변로 2호로 다수의 철기류가 부장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의 목관묘는 확인된 목관묘의 기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묘광의 면적과 유물의 부장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확인된 예로 볼 때 중위 계층의 묘로 볼 수 있으며, 이 집단의 상위 계층묘는 확인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圖 16> 황성동 강변로유적 묘광의 면적에 따른 유구분포도

목관묘 집단의 유적형태는 확인 할 수 없다.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덕천리 유적은 경주분지에서 언양으로 이어지는 곡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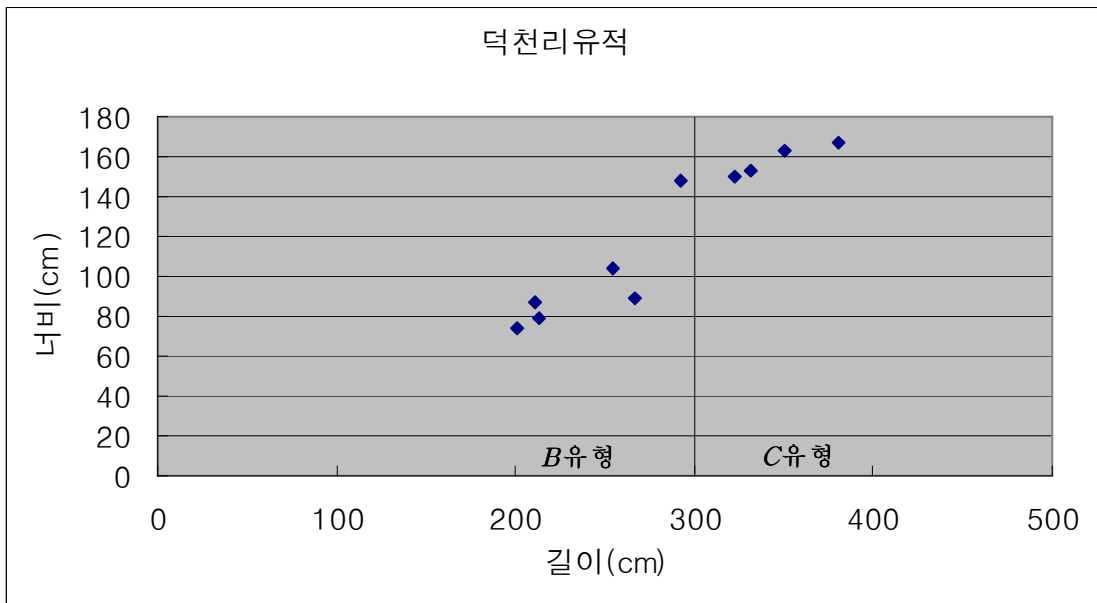
역에 위치하며, 삼한시대의 목곽묘 및 목관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덕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크기 3m이상인 C유형과 2m이상 3m미만의 B유형이 확인되고 있다. 3m이상인 C유형의 목관의 관의 형태는 모두 판재식관이며, 3m 미만의 B유형의 목관묘는 판재식관과 통나무관이 혼합되어 쓰인 것이 많다.

<표 4> 덕천리유적 목관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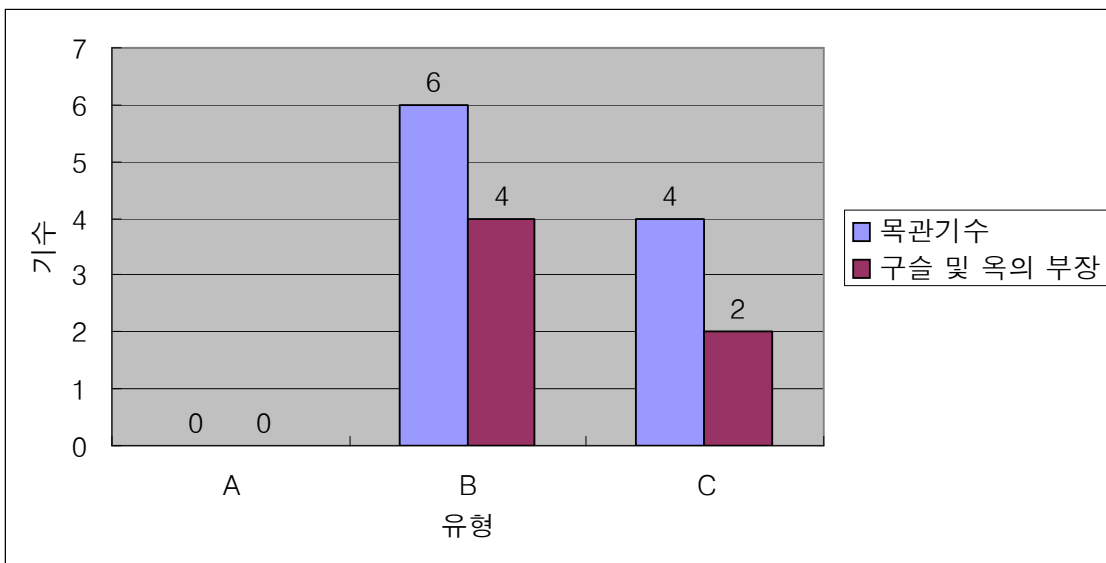
유 적		속 성 장축방향	묘광의 크기(cm)			유물			
			길이	너비	깊이	청동기	철기	토기	구슬·옥
B	123호	E-W	255	104					경식,유리제환옥
	124호	N-89°-E	213	79		마형대구			경식,유리제환옥
	125호	N-85°-W	267	89			무경식철촉9,철모,철부		경식,유리제환옥
	126호	N-84°-W	211	87					
	127호	N-87°-E	201	74		호형대구			경식,유리제환옥
	132호	N-53°-E	292	148					
C	130호	N-53°-E	381	167			철모,판상철부,철검,무경식철촉	점토대옹,단경호	경식1,유리제환옥,수정제환옥
	131호	N-31°-E	323	150				무문토기옹,주머니호	경식,유리제환옥
	133호	N-36°-E	350	163				무문토기옹,와질단경호1	
	134호	N-38°-E	332	153				와질옹, 주머니호	

덕천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관묘는 모두 10기로 B유형의 목관묘는 모두 6기이며 유물의 부장에 있어 5기의 목관묘 중 4기의 목관묘에서 경식 및 유리제환옥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목관묘 내부에서는 토기가 한 점도 부장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C유형에 속하는 목관묘는 모두 4기로 3기의 목관묘는 一자형, ㄷ자형의 단절적인 주구가 확인되며, 주축방향이 N-31°~53°-E로 목곽묘와 B유형 목관묘의 방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규모는 묘광이 길이 292~381cm, 너비 148~167cm, 깊이는 40~117cm로 목곽묘에 비해 깊은 편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56~276cm, 너비 93~128cm이며, 높이는 남아있는 충전토의 높이에서 35cm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C유형은 토기가 소량 부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유형의 목관묘에 옥 및 구슬류와 더불어 마형대구 및 호형대구가 부장되고 있다. 이는 B유형이 평균적이 중상위 계층의 묘로 추정되며, 이후 묘광이 커지는 C유형으로 파생되어



<圖 17> 덕천리유적 표본의 면적에 따른 유구 분포도

지는 것으로 보인다.



<圖 18> 덕천리유적 구슬 부장현황

각 유적별 표광면적을 통한 목관묘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라리 유적에서는 표광크기 3m미만인 B유형과 3m이상인 C유형이 분포하며 목관묘 대부분이 B류로 중심집

단은 B유형의 집단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이후 C유형인 사라리 130호처럼 묘광의 면적과 깊이가 깊어지며 유물의 부장도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조양동 유적에서는 A·B·C유형이 모두 분포하며 유적 대부분은 A·B유형의 목관묘가 중심으로 상위계층의 묘로 확인되는 조양동 38호가 B유형으로 A·B유형의 묘광형태에서 점점 C유형으로 전개되면서 목곽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황성동 강변로 유적은 모두 B유형 중심의 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덕천리 유적에서는 B·C유형이 확인되며, 유물의 부장양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B유형에서 옥과 구슬류가 대부분 부장되어 있어 중심의 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C유형으로 변모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와 목곽묘내의 구슬 및 옥의 부장량을 살펴보면,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옥과 구슬의 부장수에서 목관묘가 다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된 7기의 목곽묘 중 구슬 및 옥류가 부장된 것은 없다. 그리고 조양동유적의 목곽묘에서는 총 12기의 목곽묘 중 3기에서 수창제절마옥이나 수정제 단면옥 등의 옥류가 확인되고 있으며, 1기의 옹관묘에서도 옥의 부장양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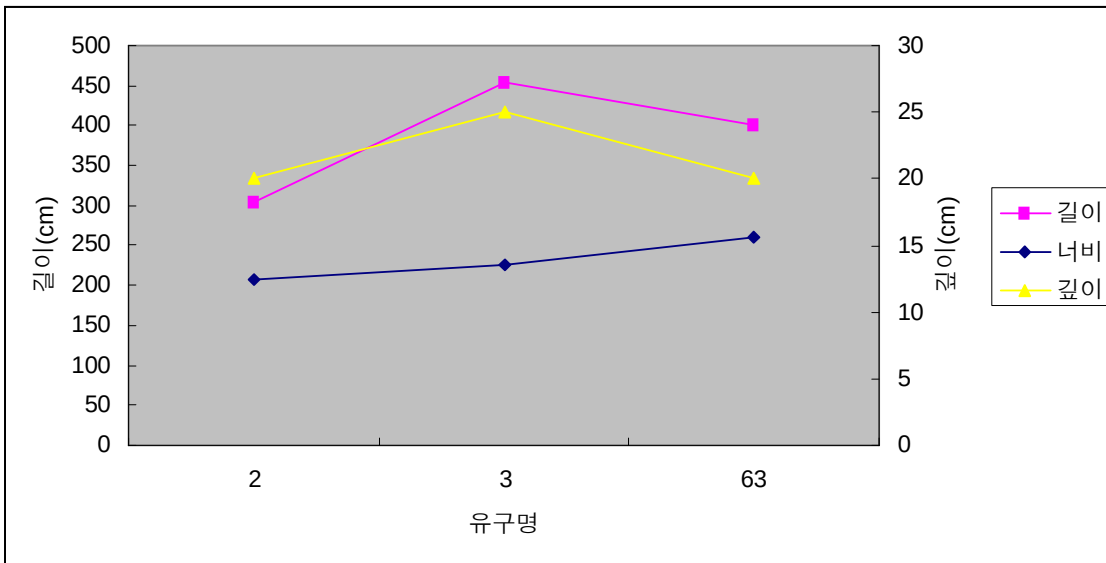
2. 유적별 목곽묘 비교

목관묘가 확인되는 유적 대부분이 목곽묘와 묘역을 같이 하고 있다. 기원후 3세기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목관계목관묘를 거쳐 목곽묘가 주 묘제로 쓰여지는 시기이다.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목관묘유적내 목곽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목관묘의 계층화 정도와 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곽묘는 모두 67기이나 보고서의 미발행으로 구슬 및 옥의 정확한 부장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전 현장설명회 자료집에 기재된 9기의 목관묘에서 구슬 및 옥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구슬 및 옥의 부장이 소량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보고서가 발행된다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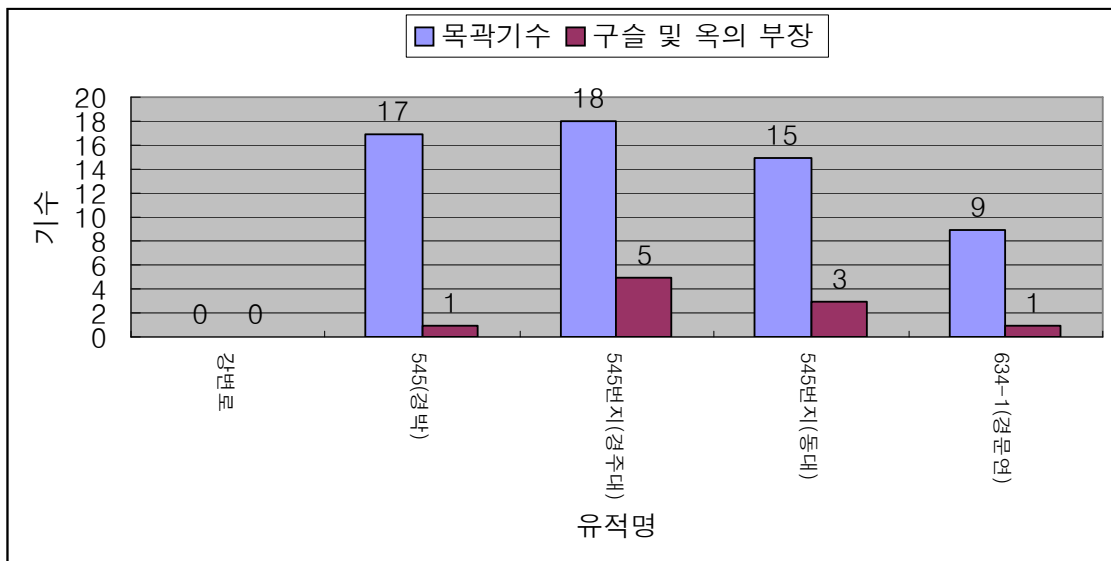
조양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곽묘는 모두 16기로 이중 옥 및 구슬이 부장되는 목곽묘는 모두 3기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구슬 및 옥의 부장이 확인되는 목곽묘는 길이 5m를 넘지 않는 목곽묘 초기 형식인 장방형목곽묘에서 확인되며 깊이 또한

얇은 형태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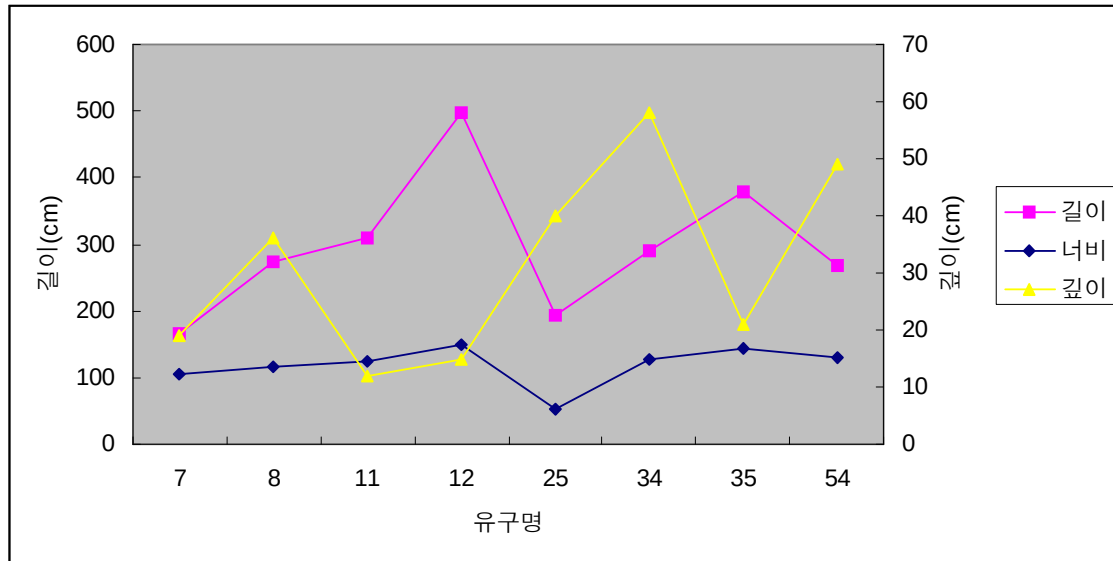
<圖 19> 조양동유적 구슬부장 목곽묘 면적

그리고 황성동 유적일대는 다수의 목곽묘 유적이 확인된 곳으로 목관묘와의 비교검토를 위하여 기존에 확인된 목곽묘를 검토한 결과 총 59기가 확인되었으며



<圖 20> 황성동 일대 목곽현황 및 구슬부장 목곽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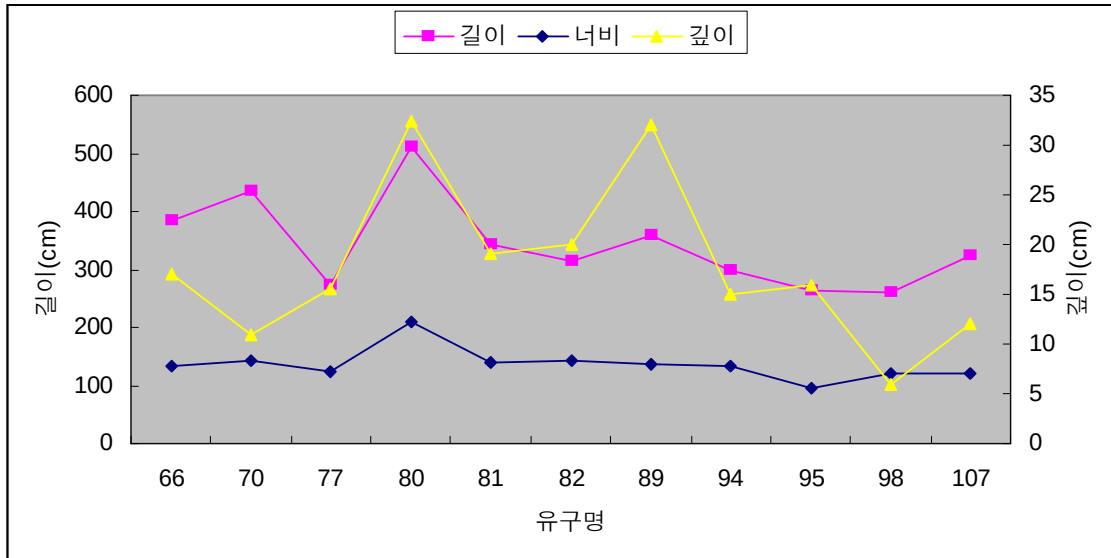
이중 구슬 및 옥이 부장된 목곽묘는 10기에 해당한다. 목곽의 크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목곽묘는 길이 4m와 너비 2m를 넘지 않는 장방형의 목곽묘로 얇은 묘광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조양동유적과 같이 목곽묘 초기형식에서만 구슬 및 옥이 부장되고 있으며, 이후 목곽묘인 세장방형이나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圖 21> 황성동유적 구슬부장 목곽묘 면적

덕천리유적 또한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덕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곽묘는 모두 122기로 이중에서 구슬 및 옥이 확인된 목곽묘는 11기이다. 덕천리 유적의 목곽묘는 장단비가 2.5:1내외의 장방형과 3:1이상의 세장방형으로 구분되며 세장방형은 유물의 배치양상에서 단곽식과 주부곽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장방형목곽묘는 묘광이 장축 143~520cm, 단축 70~208cm, 잔존깊이 5~35cm이며, 목곽이 장축 108~461cm, 단축 46~151cm이다. 세장방형목곽묘는 묘광이 장축 346~600cm, 단축 112~195cm, 잔존깊이 8~24cm이며, 목곽이 장축 305~560cm, 단축 80~157cm이다. 덕천리유적 목곽에서 출토된 구슬 및 옥의 부장양상을 나타내는 다음 그림을 참조할 때 옥과 구슬이 출토되는 대부분은 장방형

의 목곽묘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圖 22> 덕천리유적 구슬부장 목곽묘 면적

이상과 같이 경주지역 목곽에서 확인되는 구슬 및 옥의 부장양상으로 볼 때 구슬 및 옥의 부장은 묘광면적 2.5:1인 초기형식의 목곽묘인 장방형의 목곽묘에 주로 부장되고 있으며, 이후 묘광면적 3:1이상인 세장방형목곽묘나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삼한시대의 주요제인 목관묘에서 초기형식인 장방형의 목곽묘로 이행되면서 점차 부장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주지역 목관묘 부장위치 및 성격

목관묘는 한국식동검문화와 함께 한반도 남부지방에 등장하는 무덤의 형태로서 묘광을 파고 시신을 담은 목관만을 갖춘 무덤을 의미한다²⁸⁾.

목관묘의 구성요소는 나무로 구성된 목관과 묘광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토, 목관상부를 덮은 봉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 목관묘는 깊은 묘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목관묘의 경우 주구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주구의

28) 이재현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형태는 봉분을 축조할 때 이용하는 용도와 배수로로서의 역할을 같이 한다. 목관의 형태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확인된 통나무관과 판재식관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관의 재질이 모두 나무이기 때문에 모두 부식되어 남은 형태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목관의 유물배치는 한정된 공간 등으로 인하여 관 내부와 충전토내, 봉토매납유물 등으로 나타나며, 사라리 130호분은 묘광의 형태를 넓게 하여 많은 유물을 부장할 수 있게 축조한 전환기적인 요소로, 이후 목곽묘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충전토는 묘광과 목관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장공간이 부족한 부장공간의 역할을 같이 하며, 형태는 흙으로 막채우는 것과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다져 관축하는 것, 돌로써 채우는 것으로 구분되며, 후자에서 전자로 이행된다.

<표 5> 경주지역 목관묘내 부장품의 부장위치

유적명		내부	목관과 묘광사이(충전토) 및 목관상부 충전토	봉토유물	요갱(기타)
A유형	조양동13호	점토토기5, 토제원판1			
	조양동29호	수정, 유리옥1련	단경호1점		
	조양동30호		와질토기편(주식토층)		
	조양동32호	유리구슬			
	조양동42호	수창옥	유개대부호		
	조양동48호	유리옥40			
	조양동49호	유리옥1024			
	조양동51호	수창옥	철도자		
	조양동54호	옥122			
B유형	사라리43호	철검, 철기편, 경식	단경호, 철부		
	사라리45호	철검, 철모, 철부,철검, 경식			
	사라리74호	경식, 주조철부2	목관상부(철부)		
	사라리78호	조합우각식파수부호1, 철부1	원저단경호1,원저호1,목관상부(주머니호)		
	사라리110호	경식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장유형옹1, 주조철부1, 단조철부1,조합우각형파수부호1, 개1점		
	사라리111호	철검1	철검편1		
	조양동5호	철검, 환두도자,철모, 동경,철령	파수부장경옹,소형옹,철검	흑색마연장경호3, 대각편,철과,철모, 주조철부2, 판상철부1	
	조양동11호	궐수문철기,주조철부4,단조철부1, 판상철부1,(관외:주조철부,철검,철모,철착,	철기혼	파수부장경옹	

		철사,주머니호)			
	조양동18호	유리구슬	철검1, 단경호1		
	조양동20호	호박옥	철검,철부,파수부호1		단경호
	조양동22호	유리구슬			유리구슬
	조양동23호	경식(유리구슬)	조합우각형파수부호장경호,단경호,주머니호,철검,철부		
	조양동28호	철검,철검,	주조철부1,단경호,주머니호,옹형토기,철착1,철사2,주조철부편1		
	조양동31호	유리구슬	단경호1,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조양동35호		장경호2,철부1		
	조양동38호	판상철부8,철사,철도자,철검,주조철부5,철반,철검,철도자,이형철기,방추차,청동검파두식,동환, 사유경,조명경,일광경,옥	조합우각형파수부호2,단경호2,소형옹,주머니호		有
	조양동41호	대부호, 철검, 단경호			
	조양동45호	철모,옥구슬	철촉2,철검		
	조양동47호	수창제 철자옥4, 유리제옥499	장동옹		
	조양동52호		주머니호, 철기군(철검2,철부1,철사1,철촉1,철모1)		
	조양동55호	경옥	소옹,철모,철촉5,철부,철검,철사		
	조양동58호	치아	호1,고배,철부,철검,석기주머니호		
	황성동강변로 1	와질토기,철검,철모,철검			
	황성동강변로 2	판상철부, 경식, 이식	주머니호,철모,철부,철검,토기,철검,철부,철검,철촉7		
	황성동강변로 3	주머니호,철검,철모,철착,철사,단조철부,주조철부,지석	단조철부,철촉5		
	황성동강변로 4		목관상부(단경호,철부,철검), 충진토-주머니호		
C유형	사라리130호	세형동검,검파부, 김신부,소도,청동병부장식소도,청동환, 호형대구2, 동포2,방제경2, 경식, 청동소환2,판상철부61매	철복, 단경호,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유개연질옹,방제경, 용도불명철기, 원형유문동기, 철촉,철검3,철부4	마구류일식(재갈3점,8자형동기,교구,청동환,U자형철기,꺾수형철기), 철모(2단병식), 대호	

	조양동15호	주조철부, 와질토기편			
	조양동33호	파수부장경호			
	조양동62호	철검,철검,철부,철모2,철반, 철검편			
	조양동60호	항아리,철기,철제재갈3,투 겁창,판상철부,주머니호,철 기,칠초철검3점,구슬,청동 마형대구,판상철부2		나비형청동기,청동 환	목곽내모 서리(판 상철부4 점)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주 덕천리유적은 발굴보고서의 미간으로 정확한 부장 위치는 알 수 없어,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면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주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목관묘는 이상의 표와 같으며, 경주지역 목관묘의 부장 방식을 유형에 대입하면 B유형과 A유형은 시기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유형이 피지배층묘로 대부분의 부장이 목관내부와 충진토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물의 양에 있어서도 구슬 및 옥류가 다소 부장되지만 토기와 철기는 소량 부장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B유형은 구슬과 옥의 부장이 점차 줄어들는 반면 철기와 토기의 부장량이 증대하며, 봉토내에도 유물이 부장되는 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지배층묘로 확인되는 조양동 38호묘에서는 일광경과 조명경 등의 한경과 청동검과두식 판상철부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B유형의 목관묘 또한 철기와 토기의 부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배층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유형은 목관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목관계목곽묘로 다량의 철기와 토기가 부장되며 조양동 60호와 사라리 130호와 같이 봉분에 유물을 다수 부장하게 된다. 그리고 판상철부와 청동검과두식과 방제경 등의 위세품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조양동 38호 등의 B유형에서 점차 C유형으로 이행되며, 결국 C유형은 목곽묘로 전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목관묘 전체적인 부장양식은 A유형의 경우 모두 목관의 내부에 부장을 하였으나 대부분이 구슬과 옥 종류이고, 토기 및 철의 부장 소량이다. 이에 반해 B유형으로 진행될수록 철기와 토기의 부장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A유형을 기층민의 묘로 볼 수 있으며, B유형은 상당량의 제력을 가진 상위 계층의 묘로 도출 할 수 있다. 이후 나타나는 C유형은 B유형에서 변모한 목곽묘적인 요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V. 경주지역 삼한사회의 성격

1. 시대상향

斯盧國에 관한 초기기록은 『後漢書』와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韓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倭와 접경하여 면적이 사방 4천리 쯤 된다.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馬韓, 둘째는 辰韓, 셋째는 弁韓이다²⁹⁾.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마한은 현재 충청도와 경기도, 전라도 일대로 비정되고 있으며, 진한과 변한은 영남지역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斯盧國은 辰韓에 속하는 12개국 중 하나로 『三國志』에도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新羅 또는 斯盧國으로 불린다.

진한에 대해 『晉書』에서는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써 秦의 苦域을 피하여 韓에 들어왔는데, 한이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그들을 살게 하였다고 한다. 成冊을 세웠으며, 언어는 진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혹 秦韓이라고도 하였다³⁰⁾.

처음에는 여섯 나라가 있었으나, 그 뒤 점점 나뉘어 12국이 되었다. 또 진한이 있는데 그 역시 12국으로 도합 4~5萬戶이며, 각각 渠師가 있고 모두 辰韓에 속해 있다.

이런 기록들로 볼 때 사로국이 위치한 진한은 秦나라에서 유입된 유이민 집단으로 생각되며, 이런 유이민 집단들은 馬韓이라는 토착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³¹⁾. 이런 단편적인 예는 진한의 제도와 생활은 마한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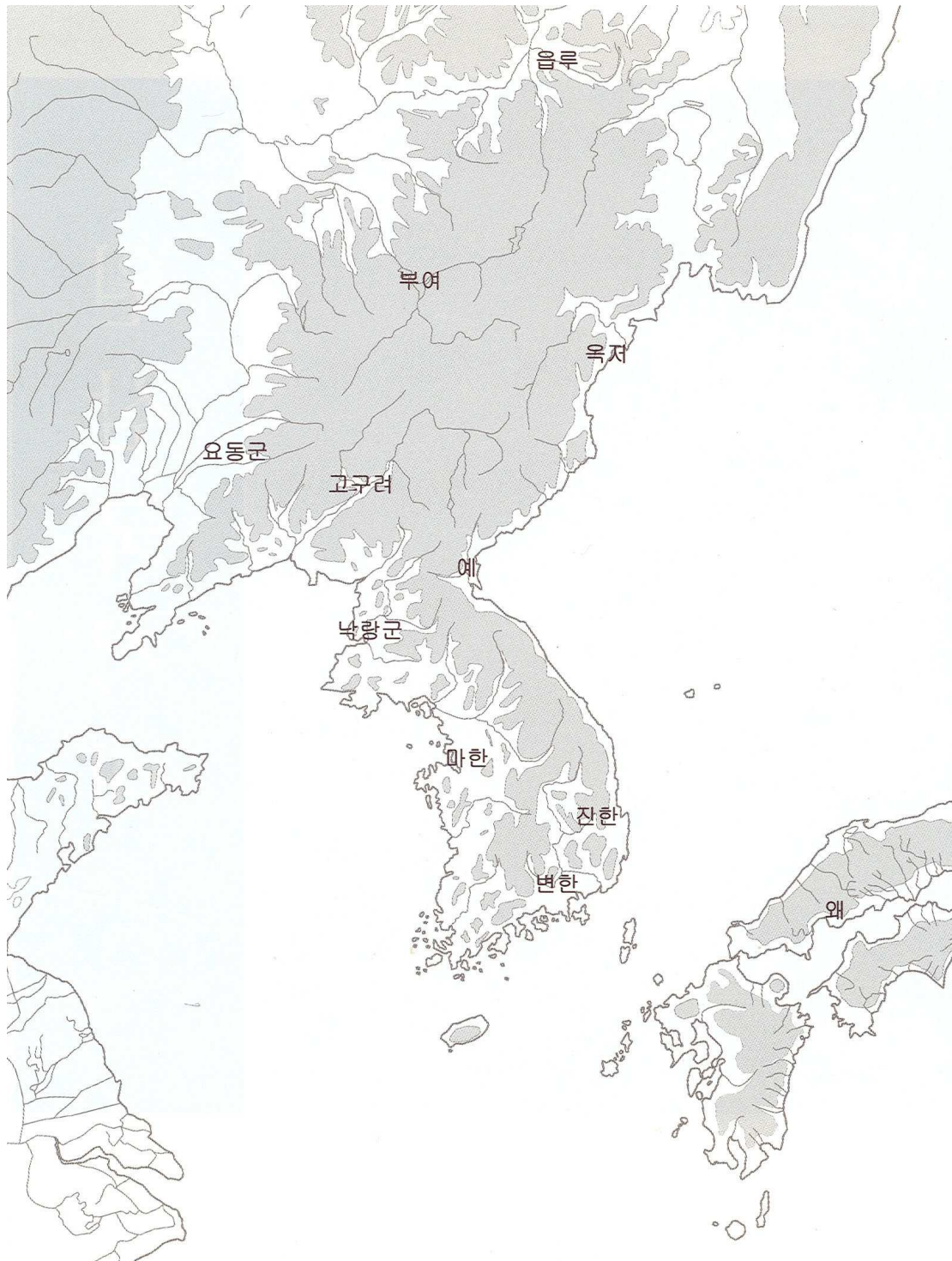
29)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後漢書』卷八十五, 東夷列傳七十五.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30) 『晉書』東夷列傳.

31) 『後漢書』의 기록에 마한이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辰王으로 삼아 目支國에 도읍하여 전체 三韓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데, 諸國王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

『晉書』에는 진한은 언제나 마한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니 비록 대대로 계승하지만 스스로 임금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흘러들어온 사람이 분명한 까닭에 마한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圖 23> 삼한시대 주변 환경

변한 또한 진한에 속해 있어 생활상이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삼한’이 언제로부터 ‘韓’사회로부터 구분되어 지는지 알 수 없으나 존속은 기록상 3세기 후반까지 확인 된다³²⁾. 삼한 이전 사회는 辰國(衆國)으로서³³⁾, 그 문화적 기반은, 대체로 B.C 3~2세기로 편년되는 細形銅劍文化이다. 삼한은 전국사회에서 계기적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³⁴⁾. 한반도 중남부지방에서 공통된 목관묘·세형동검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韓’사회가 ‘三韓’으로 구분되는 요인에 대해서 『三國志』는 자연지리에 기인한 것으로 서술하지만 진한과 변한의 경우 雜居한다고 하여 이 또한 뚜렷한 구분의 근거는 아닌 듯하다. 모호한 기록상 구분보다는 小國 사이에 형성된 有機的인 結束關係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외 정책에 따라 ‘韓’사회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 정치체의 성장억제와 원심분리적 조종이 가해진 결과로 보기도 한다³⁵⁾.

삼한분립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삼한이 동일한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묘제는 전통성이 강한 문화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공통된 양식이 존재했을 것이며 단지 정치체의 상호관계와 지리적 요인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한과 변한의 경우 『三國志』에 기록된 철의 우월한 생산력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였을 것이며, 이는 동해안과 남해안에 연접한 해상로를 따라 이동되었을 것이다. 경주지역과 김해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목곽묘는 경주 조양동 유적과 입실리, 구정동의 울산방면으로 이어지는 곡간지대에 다소 형성되어 있으며, 대구로 이어지는 사라리유적, 언양으로 이어지는 덕천리유적 등 대부분의 유적이 해상과 육상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밀집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무역이나 상업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탁월한 상권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일련의 발굴성으로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전역에서 목관묘 및 목곽묘 유적이 확인되며, 이러한 목관묘와 목곽묘의 시기적인 차이는 목관에서 목곽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거쳐 기원후 2세기와 3세기에는 목곽묘가 주요묘제로 자리 잡게 된다.

32) 주29의 책.

33) 『史記』朝鮮列傳.

34)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35) 주2의 논문.

2. 묘제연구를 통해 본 경주지역 사회의 상황

『後漢書』東夷列傳에 기록된 진한의 기록은 “모든 작은 邑에는 각각 渠師가 있으니, 강대한 자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儉側, 그 다음은 樊祗, 그 다음은 殺奚, 그 다음은 邑借가 있다. 토질이 비옥하여 5곡이 잘 자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비단을 짠다. 소나 말을 타고 다니며, 혼인은 예의에 맞게 하며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양보한다.

그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濊·倭·馬韓이 모두 와서 사간다. 모든 무역에 있어서 鐵을 화폐로 사용 한다³⁶⁾.

라는 기록으로 볼 때 다수의 읍락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읍락을 구성하는 인원은 『三國志』의 弁辰條에 기록된 “대국은 4~5천 家이고, 소국은 6~7백 가로, 총 4~5만호이다³⁷⁾.”라는 기록으로 볼 때 다수의 읍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경주지역에서 곡간과 곡간 사이에서 확인되는 사라리나 조양동, 덕천리유적은 다수의 읍락중 하나의 읍락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철의 생산지로서 무역을 통하여 삼한 중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양동 38호나, 68호, 사라리 130호 등의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관상철부 또는 철정은 무역 또는 교역에 있어서 화폐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의 목관묘 집단은 각 곡간지대 또는 교통로의 중심에 읍락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후 목관묘 집단에 의해 큰 읍락을 중심으로 국읍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경주지역 목관묘 또한 이런 계통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남쪽의 곡간지대에 조양동, 구정동, 입실리, 죽동리 집단이 위치하며, 영천으로 이어지는 곡간지대에 사라리와 영천어은동 유적 및 다수의 읍락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양으로 이어지는 동남쪽의 곡간지대에 덕천리 집단과 포항으로 이어지는 북동쪽의 안계리와 다수의 읍락이 분포하였을 것이다. 정작 경주분지 중심에는 현재까지 황성동유적이 확인되고 있을 뿐으로 집단을 형성한 상위층의 분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유적의 대부분은 경주지역 외곽 곡간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기

36) 諸小別邑，各有渠師，大者名臣智，次有儉側，次有樊祗，次有殺奚，次有邑借。土地△△美，宣五穀，知蠶桑，作縑布。乘駟牛馬。嫁娶以禮。行者讓路。國出鐵，濊・倭・馬韓並從市之。

37) 大國四五千家，小國六七百家，總四五萬戶。

에 더하여 교통적인 요소 및 방어적인 목적 또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물이 없는 평지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군사와 무기가 필요하나 곡간지대는 평야지대보다는 군사나 무기에 있어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관묘군에 대해서 각 목관묘군이 읍락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읍락 안의 주요 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촌락 단위의 분묘군으로 보는 견해³⁸⁾가 있다. 즉 수장묘의 위계화된 분포를 검토하여 밀집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이유로 지배층의 무덤이 축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즉 기원전후한 시기의 사로국이 경주권을 아우르는 광역일 것으로 상정하고 지배층묘가 그 안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기원전후한 시기의 소국이라는 것은 조양동집단이나 사라리집단 등이 하나의 광역의 소국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소국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각의 분묘군 내의 지배자묘는 그러한 소국의 지배자묘일 가능성이 높음을 논증한 견해가 있다³⁹⁾. 이러한 주장에서는 정치적인 위세품으로 볼 수 있는 청동기의 교환상을 추론한 것으로 각각의 분묘군 지배자묘에서 출토되는 청동기, 즉 촌락의 지배자들이 소유한 청동기가 광역의 사로국의 중심지에서 생산되어 교환되었다기보다는 청동기 생산체제를 가진 특정 소국에서 생산되어 소국과 소국간에 수평적으로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청동기들은 각 촌락 단위로 정치적인 위세품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원전후한 시기의 촌락은 그 자체가 자치적인 소국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철기사용에 있어서도 한반도 중부이남에서의 철기사용의 개시 연대는 최근 중서부 지방에서 발견된 청동기와 공반되는 몇몇 철기유물들에 의해 기원전 2세기경으로 소급되었다. 이 단계의 철기는 鑄造된 鐵斧, 鐵鑿 등의 工具類 셋트에 국한된 단순 조합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昌原 茶戶里遺蹟에서는 鑄造鐵斧 이외에 다양한 鍛造 農工具類가 다량 발견되었다. 이때부터 청동기는 祭器나 儀器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주된 生産道具는 철로 제작되었으니 그 시점은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된다⁴⁰⁾

38) 李熙濬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취락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26, 韓國考古學會.

39) 이청규 2001, 「기원 전후 慶州와 周邊과의 交流-토기와 청동기를 중심으로-」 『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권오영은 경주황성동유적의 집단의 성격을 철기를 생산하는 특수집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주 조양동5호에서 주조철부와 철검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읍락간의 교역이나 교류를 통하거나 집적적인 생산을 통한 철기확보 또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황성동유적과 인접한 철제광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읍락이나 취락에서 물물교환이나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철소재에 있어서 조양동60호분이나 사라리 130호분에 쓰인 판상철부인 중간소재를 교역의 대가로 삼았을 것이다.

이로보아 울산으로 이어지는 곡간지대에 형성된 읍락이나 취락세력 또는 영천으로 이어지는 곡간지대의 목관묘 집단의 교역 또는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 유적은 영천으로 이어지는 곡간지역의 사라리유적과 울산으로 이어지는 곡간지대에 위치한 조양동유적, 언양방면의 덕천리유적과 경주시내의 황성동유적이 있다. 조양동유적이 위치한 곡간지대는 입실리와 죽동리 등에서 목관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위세품이 확인되어 다수의 목관묘가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관묘 집단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 목곽묘로 전환되기 전의 중심묘제이다.

이시기 분묘 부장에 있어서 이전 시기에 사용되던 청동무기는 위세품으로 바뀌게 되고 철기가 실용적인 무기로 대체되게 된다. 경주지역 또한 영남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철기의 부장이 증대될수록 토기의 부장도 늘어나며, 이와 함께 청동 위세품도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수장 또는 읍락의 부족장의 묘로 볼 수 있는 유적은 사라리 130호와 조양동 38호, 60호 묘로 한경과 방제경, 세형동검과 다량의 판상철부를 부장함으로서 묘의 주인공을 그 부족의 상위계층 또는 지배자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경주지역의 상황을 두고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기록된 “ 구슬을 귀하게

40) 주 34의 논문.

여겨 옷에 꿰메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 은과 錦 繡는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기인하여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유적별로 나타나는 묘광의 면적에 따라 2m 미만의 묘광을 가진 목관묘를 A유형, 2m이상 3m미만을 B유형, 3m이상의 목관묘를 C유형으로 나눈 뒤 목관내부에 부장된 구슬과 옥의 부장양상을 대입하여 계층화를 살펴보았다. 사라리 유적은 대부분이 B유형이었으며, 다량의 부장품이 부장된 사라리 130호분만이 C유형에 속하였다. 옥과 구슬의 부장양상에 있어서도 B와 C유형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조양동 유적의 경우 A~C유형 목관묘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A유형의 목관묘에서 옥과 구슬의 양이 많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묘광의 면적이 커질수록 옥과 구슬의 부장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철기가 사회적인 신분의 우월성으로 등장함에 따라 철기의 부장양이 많아지는데 기인할 수 있다. 황성동의 경우 모두 B유형에 속하며, 목관묘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확인 할 수 없으나, 유물의 부장양상으로 볼 때 어느정도 계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덕천리 유적의 경우 또한 B와 C유형의 목관묘가 확인되고 있으며, A유형의 목관묘에서는 철기와 토기가 소량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옥과 구슬의 부장양은 B유형 목관묘에서 다수 확인되며, 초기형식인 장방형의 목관묘에서도 소량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주지역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구슬 및 옥의 부장은 시기 차이가 거의 없는 A유형과 B유형이 대부분 함께 나타나며, 유물의 부장에 있어 A유형은 구슬을 제외하면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이 빈약한데 비해 B유형은 철기와 토기의 부장이 증대되며 수장묘로 볼 수 있는 조양동 38호묘와 같이 상위계층묘도 확인된다. 이로 볼 때 구슬과 옥의 부장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A유형을 기층민의 묘로 그리고 청동 위세품과 다수의 철기와 토기가 부장된 B유형을 상위계층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B유형에서 목관계목관묘로 전환되는 C유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사라리 130호와 조양동 60호의 부장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A와 B유형목관묘에서 C유형목관묘로 전환되며, A유형목관묘를 기층민의 묘로 B와 C유형목관묘를 상위계층의 묘로 볼 수 있으며, 목관묘의 구슬 부장양과 비교해 볼 때 초기형식인 장방형의 목관묘에서만 구슬의 부장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三國志』와 『後漢書』에 기록된 구슬의 기록과 시대상황을 비교해 볼 때 경주지역에서는 곡간지대를 중심으로 각 부족이나 읍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라리 130호와 조양동 38호와 60호 묘의 주인공들을 부

죽이나 읍락 또는 수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주지역에서 어느 정도 계층화가 이루어졌으나 완전한 계급적인 분화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지역의 목관묘단계에서는 아직까지 國邑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취락이나 부족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읍락이 형성되었으며, 이 읍락은 경주 외곽의 곡각지 일대에 형성되어 교역이나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주 중심에 있어 목관묘 집단의 수장묘나 집단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논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경주지역에서 목관묘 집단과 관련된 유구나 유적이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參考文獻

<單行本>

- 國史編纂委員會 1986, 『국역 中國正史朝鮮傳』.
- 國立慶州博物館 2003, 『慶州 朝陽洞 遺跡 II』.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韓國 考古學事典』.
- 이종욱 1982, 『신라국가형성사연구』, 一潮閣.
-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慶州舍羅里遺蹟 II』.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내 경주 덕천리 I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學研文化社.
- 崔鍾圭 1994, 『三韓考古學 研究』, 書景文化社.
-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9, 『考古學誌』1輯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1, 『考古學誌』3輯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
-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3, 『考古學誌』5輯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I)」.
-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5, 『考古學誌』7輯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 韓國上古史學會 2000, 『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학연문화사.
- 2006, 『斯盧國시기의 慶州 무덤과 地域集團』,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3, 『慶州 皇城洞 遺蹟 I-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論文>

- 權五榮 1995, 「삼한 국읍의 기능과 내부구조」 『釜山史學』 28.
-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權志英 2004, 「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研究 -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大煥 2000, 「지배층묘를 통해 본 新羅 중심지역의 形成」 『科技考古研究』 第8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金度憲 2001, 「古代의 鐵製農具에 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002, 「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 『嶺南考古學報』 31.
- 全玉年 1988, 「嶺南地方에 있어서 後期 瓦質土器의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龍星 199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 朴廣春 2003, 「洛東江流域의 初期國家 成立」 『韓國古代史學報』 第39號.
- 박영진 1995,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삼한사회와 문화』, 한국고대사연구10, 신서원
- 宋桂鉉 2002, 「嶺南地域의 初期鐵器文化」 『영남지방의 초기철기문화』 제1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嶺南考古學會.
- 安京淑 1998, 「多紐鏡에서 漢鏡으로 轉換에 대한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1994,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14. pp63~87
- 2000, 「辰·弁韓의 木棺墓文化」 『동아세아의 고고학』, 청림서점.
-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鶴山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 李健茂 1992, 「韓國 靑銅義器의 研究-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28.
- 1992, 「韓國式 銅劍文化」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문화』,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제3집-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 李京淳 1994, 「細形銅劍文化期の 墓制에 관한 考察」,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南珪 1982, 「韓國 鐵器文化의 一考察」 『韓國考古學報』 12-13.
- 1987, 「西北韓 土壤墓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20.
-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新羅文化』 14, pp.28~32.
- 1997, 「辰·弁韓 鐵製武器의 樣相에 대한 몇 가지 檢討 -起源期の 樣相과 變形過程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報』 21.
- 1999, 「辰·弁韓地域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報』 24.
- 李盛周·金眩希 2000, 「蔚山 茶雲洞·中山里遺蹟의 木棺墓와 木槨墓」 『三韓의 마울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 이영훈 1987, 「樂浪木槨墓의 一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住憲 1994, 「三韓의 木棺墓에 대하여」, 『古文化』 第44輯.
- 李清圭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報』 21, pp29~33.
- 2000, 「斯盧國 形成 前後의 慶州」 『古文化』, 第55輯.
- 2001, 「기원 전후 慶州와 周邊과의 交流-토기와 청동기를 중심으로-」 『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韓國上古史學會 研究叢書, 學술문화사.
- 2002, 「세형동검시기의 영남지역 묘제」 『세형동검문화의 제문제』,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 5회 합동고고학회.

- 李海蓮 1993, 「金海 大成洞 29號墳에 관한 研究-洛東江流域의 出現期古墳의 一樣相」, 慶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002, 「細形銅劍時期的 嶺南地域 墓制」 『細形銅劍文化的 제문제』 영남고고학회 · 구주고고학회 제5회 합동고고학대회.
- 李賢惠 1990, 「삼한사회의 농업생산과 철제농기구」 『歷史學報』 126.
- 1993, 「원삼국시대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 1993, 「1-3세기 한반도 대외교역체계」, 제4회 아세아사학회 서울연구대회, 삼성미술문화재단.
- 李熙濬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취락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26.
- 2000, 「대구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 2004, 「초기철기시대 · 원삼국시대재론」 『韓國考古學報』 52.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皇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林孝澤 1993, 「洛東江 下流域 伽倻의 土壙木棺墓」,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조유전 1990, 「慶州地方 三國時代 前期의 考古學 研究現況」 『韓國考古學報』 24, pp.9~13.
- 鄭仁盛 1997, 「낙동강 유역권 細形銅劍 文化的 전개」,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002, 「지석묘문화에서 세형동검 문화로의 이행」 『전환기의 고고학 I』, 학연문화사.
- 최종규 1982,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Study of wooden coffin tombs of Three Han Dynasty in Gyeongju area

Kim Hee-Chul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Ho)

(Abstract)

Gyeongju, as a center of the Silla Dynasty for a millenium, has grown continuously and been known by the name of Silla or Saroguk. But the records of the early period forming the Saroguk are insufficient.

So this thesis will limit the time to three Han dynasty(B.C.1~A.D.2) and the space to wooden coffin tomb and wooden chamber tomb remains in Gyeongju area fo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wooden coffin tombs confirmed in Gyeongju. Paying attention to the passage of The quest of three kingdoms, "They think beads precious and stitch them on their clothes, wear them on their neck or ears but they don't think gold, silver or silk as treasures." I will type the main attributes of wooden coffin tombs - the formation pattern, burial location, size and level forms of the grave pit, direction of the head and major axis and funerary objects. And then inspect the burying phase of beads and jade from wooden coffin tombs to find out the changes and social positions following the type of wooden coffin tombs.

I divided the tombs of three Han dynasty in Gyeongju into three types by the size of the grave pit. Type A, under 2m Type B, 2m through 3m and Type C means over 3m. And look up the stratification by substitution of the beads and jade burying phase to the size.

Most tombs of Sara-ri are Type B but only the tomb 130 which has lots of burying objects is Type C. They are also generally confirmed in Type B and C by the bead and jade burying. In the remains of Joyang-dong which has all the type from A to C, Type A tombs have plenty beads and jade. Larger the pit size, smaller the beads and jade volume. It's because more ironware which means social superiority. The tombs of Hwangseong-dong are all Type B and supposed to form the stratification somehow judging by burying objects though there are too small numbers of tombs to confirm it. There are Type B and C in Doekcheon-ri and the Type A tomb has little ironware and earthenware. Type B tombs have many beads and jade and primary formed rectangular wooden chamber tombs have some.

In other words, we can consider through the overall conditions that Type A and B tombs converted into Type C tombs. And regard Type A tombs as lower classes', Type B and C tombs as high classes'. When we compare it with the volume of burying beads of wooden chamber tombs, we can find out that there are beads only in the primary formed rectangular wooden chamber tombs. Put the record of The quest of three kingdoms about the beads and the phases of the time into account, we can guess that the valley centered tribes or chiefdoms might be formed in Gyeongju.